

통권 제168호 / 2004. 1·2

우리문화

신년문화정담 | 지역문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종철 · 임현영 · 이흥재

고구려사 특집 | 고구려와 우리역사의 정체성

이성무 · 최광식 · 강현숙

기·획·특·집 | 우리 문화 디지털화 어디까지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 문화가족 여러분과
독자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며
갑신년 새해가 문화 발전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회 장 권 용 태
부 회 장 이 영 철
" 김 종 기
" 고 경 재
" 조 남 식
" 이 만 희
사무총장 하 만 기

우리문화



C O N T E N T

신년사 문화의 역동성으로 새로운 출발을-권용태 2

나와 문화 문화는 빛 속에 흐르는 것-윤병철 4

신년시 그리운 메아리-최은하 8

지역문화 네트워크 지방문화원 행사·동정 9

연합회 제43회 정기총회 중국 고구려사 왜곡 시정 결의문 채택 14

신년문화정담 지역문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
이종철·임현영·이흥재

문화원 강좌의 차별화 전략
문화교육 재미보다 의미를 찾는 교육-김보성 30

특 집 **고구려와 우리 역사의 정체성**
고구려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성무 35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대응방안-최광식 39
중국과 북한 유적에 나타난 정체성-강현숙 43

기획특집 **우리 문화 디지털화 어디까지**
우리 문화 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나문성 48
우리 문화 디지털화와 세계화 과제-주영하 52
현재진행중 우리 문화 디지털 작업-편집부 56

우리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옛 사람의 체취 그림으로 읽는다-오주석 60

전통문화의 숨결 전통도검 장인 홍석현 66

전통음식으로 지역문화 살리자
지역 전통음식 상품화와 국제화 전략-이종수 69

샤머니즘과 전통문화 동해안 지역의 서낭당 설화-김선풍 73

삼다도의 민속 제주도 지킴이 신당과 돌행이-주강현 79

세시풍속 우리 민속에 나타난 원숭이의 상징적 의미-천진기 82

중국문화기행 살아 있는 무릉도원 장가계-이기화 86

향토지킴이를 찾아서 사거남양주에서 40년 향토사 연구-임병규 91

전통문화 공간소개 95

회의도 경쟁력이다④ 총회의 주요사항은 기록에 남긴다-김점동 99

- 발행처 / 전문문화원연합회
우편번호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www.kccf.or.kr
전화 : (02)704-2311~3
팩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 7. 12)
• 발행·편집인 / 권 용 태
• 편집주간 / 채 강 희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화 : (02)2275-8106
팩스 : (02)2275-8107
- 편집·디자인 / 맥인디자인
전화 : (02)2266-5290
팩스 : (02)2266-5291
- 편집위원
신찬균 불교TV문화원 고문
김 종 광주 서구문화원 원장
전택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이흥재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정가 3,000원



표지
최진연 작 <쥐불놀이>

문화의 역동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지방문화 진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은 혼란 속에서도 위기와 기회가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 향유의 시대를 맞아 말보다는 문화의 동력으로, 창발력으로 이 한 해를 활기차게 출발해야겠습니다.

전국 문화가족 여러분,

정부는 올해부터 문화를 통한 사회전반의 체질개선과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대통령이 지방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지시를 문화관광부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 지방문화원으로서 큰 기대와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연합회로서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향토문화를 육성·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뒤지지 않는 창의적인 발상과 정책개발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를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심층분석하고 모든 정책대안의 개발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합리적인 운영과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두뇌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의 추진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정보화마인드를 갖춘 문화전문가가 우리 문화원에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화부문에서는 너무도 뒤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220개 지방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향토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새로운 문화지식과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상에 또 하나의 문화원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규모의 조직이 활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화가족들에게 접근한다면 연합회의 기능도 단번에 업그레이드될 뿐 아니라 전국적 네트워크는 사이버상의 거대한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순회토론회와 향토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의 개통과 주 5일근무제로 여가문화의 확산에 따른 지역간 문화격차의 해

소를 위해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서 각종 공연 행사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이 심각한 도전을 받는 차제에 우리 다 함께 우리문화·역사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우리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 드리면서 신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윤병철 회장

“문화는 빛 속에 흐르는 것”



윤병철(67) 회장은 지난 93년부터 국립발레단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회장단으로 활동하면서 메세나운동의 정착과 확산에 힘을 쏟아 왔다. 또 예술의 전당 자문위원으로 공연예술의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할 때인 94년 9월 국립발레단의 정기공연 ‘해적’에 노예상인으로 단막 출연한 적도 있다.

Q 윤 회장님의 이력을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방황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A 사람의 인생은 날씨와 같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측불가능한 일도 있어요. 30여년 전 건강 악화로 6개월 정도 심하게 앓았지요. 그때의 경험이 나를 많이 성숙시켰다고 여겨집니다.

Q 한때 발레 ‘해적’에 노예상인으로 단막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그때, 발레단원의 고충을 느껴보자는 생각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립발레단 후원회장을 맡아오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요.

A 당시 문화행사를 돕는 의미에서 출연을 자청했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은행에 있을 때, 의식주와 삶을 다루는 계간 잡지를 발행

하는 한편 중앙미술대전인 ‘구상전’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그때 발레단을 지원하게 되었죠.

후원회를 만들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국립발레단 정기공연을 앞두고 단역 출연료가 적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얘기를 단장에게서 들었죠. 중년의 부유한 노예상인 티가 나지 않아 몹시 고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신호(전경련 회장·동아제약 회장), 김재기(한국무역협회 회장), 오세훈(국회의원), 박종웅(국회의원) 등과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출연하면서 단원들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이해하게 되었고 사기도 많이 진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정부나 기업 등에서 문화예술계를 지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문화는 경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바탕이 되어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Q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1년 동안 성천아카데미 제11기 동서인문고전강좌를 수료하셨는데….

A 하나은행 회장으로 있을 때였지요. 우리 세대가 정규교육에서 고전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독서를 통해 겨우 조금씩 맛본 정도죠. 성천아카데미에서는 동서양의 고전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어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성천아카데미에 등록하고 각 종교의 원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불교의 원전과 역사 등이 꼭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큰 결정을 그때 그때 내려야 하는데, 그런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선 고전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전

강좌 같은 것이 사회의 지도층에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기업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A 당시 ‘기업메세나상’을 처음으로 만들어 시상하도록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업메세나운동은 기업이 좋은 문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돈을 좋은 곳에 쓰도록 유도하는, 바로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것이 바로 기업메세나상의 제정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1기업 1문화 운동을 마무리짓지 못한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기업 임원의 부인들이 그런 사업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활동했으면 했지요. 부인들의 사회적 활동의 폭도 넓히고, 그것이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 일이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한 예로 부인들이 각기 몇몇 극단을 후원하는 방식 등으로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면 했는데,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Q 음악이나 그림 등 문화예술에 취미를 갖고 계시고, 독서를 많이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소장하신 책 중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한권만 택하라면 어떤 책을 꼽을 수 있을까요.

A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좀 멀어 항상 걸으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지요. 좋은 책을 구할 수 없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손에 들어오는 대로 책이라면 다 읽었죠. 주로 소설이었고, 그래서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이상과 낭만에 젖어 보기도 하고 비분강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춘원 이광수, 앙드레 지드, 헤르만 헤세 등이 준 감명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일에 쫓겨 책을 읽지 못하였고 틈이 나면 시집을 읽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김소월과 영랑 김윤식의 서정적 시어들은 나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자양제였지요. 30대 후반 심하게 앓았을 때 만난 청담 스님의 <마음>이라는 책은 너무도 신선했습니다. 이 책 중에서 “방안에서 문구명으로 밖을 내다볼 때 네가 보느냐, 문구명이 보느냐? 네가 세상을 볼 때 눈이 보느냐, 네가 보느냐? 네가 본다면, 진정한 너는 누구냐?” 이 물음이 나에게 던진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법어들을 탐독하면서 나는 어렵פות이나 이 물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택하게 된다면 청담 스님의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Q 어느 외국인에게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없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랑스런 5천년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전통을 단순히 예로부터의 유물을 되살린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박물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의 원형을 살려 현재의 우리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보급해서 그 정신을 면면히 살려 나가는 것이 전통의 본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의 말은 전통에 남아 있는 좋은 점을 개발해 현대에 재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Q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실업과 경제사정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멀리 밀려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왜 문화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현재 우리 사회의 물질문화는 성숙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전제품이나 의류 등 기능은 다 갖춰져 있지요. 와이셔츠의 경우 편의성을 도모한다면 가장 싼 것을 택하겠지요.

고가의 브랜드는 창조적이고 디자인이 독특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활동도 자꾸 그렇게 가리라고 전망됩니다. 디자인이 판매량을 결정한다고 보면 그것의 바탕은 바로 문화지요. 21세기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편리 추구’에서 ‘창의력’이 중시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문화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어우러진 것인데,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모든 것을 문화예술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문화투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Q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지원이 거의 서울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문화계는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 최근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에 많이 투자했다면, 현재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문화투자에 대한 괴리감은 있지만, 점차 지방에도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측도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각각의 개성이 다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용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즉,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예술계가



△ 캡션이 들어갈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눈앞의 지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줍니다.

주로 음악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연극 등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 집니다. 사실,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인맥에 따라 지원이 되고 무대에 올려지는 예가 있기도 합니다.

Q 전국 시·군·구 220곳에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육성과 향토문화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자생력을 기르고 지역의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지방의 발전은 지방민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문화는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지방문화는 지방사람들이 좋아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지요.

독일에 갔을 때 일행과 함께 카바레에 갔습

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그 곳에는 모두 가족 단위로 옵니다. 문화는 빛 속에 흐르는 것이죠. 빛을 받고, 즉 밝은 세상으로 나갈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도 그 지방만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내내 윤희장은 밝고 힘찬 목소리로 질문에 답변을 이어 나갔다. 18년 동안 금융CEO로 지내면서도 성천아카데미 동서인문고전강좌를 수료하고 오페라 ‘해적’에 단막 출연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예술의전당 자문위원, 국립발레단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97년 한국능률협회 한국경영대상(금융·공공부문), 96년에는 제3회 대한민국 기업문화상(개인부문)을 수상했다.

현재 우리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과 한국FP협회 회장에 재임 중이다.

〈박전걸 기자·사진 조혜진〉

그리운 메아리

머언 아주 먼 훗날에까지
 메아리 모여 메아리 마을 이루는 하늘 아래
 눈빛 말간 메아리
 영롱하게 얼비치는 물방울 하나씩의 메아리
 가슴 두근거리며 홀로 발광하는 메아리와 어울어
 나도 메아리 되리.
 하냥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그 어디라 떠돌며 끝날을 지내는 메아리
 언제나 젖어서 울려퍼지고
 누구의 노래라도 놓치지 않고
 따라 부르며 하늘로 오르는 메아리
 하루가 저무는 석양녘이면
 짙은 황혼에 잠겨서도
 낭랑한 목소리의 메아리
 깊은 산굽이 돌아 아슬한 절벽 마주하면
 떨리는 손길 가다듬고 오색 날개로 훨훨 날아
 어느 바람결에도 사위지 않고
 꼬옥 제자리 찾아 돌아오는 메아리
 그런 메아리 되어봤으면 싶다.



최은하
 시인,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

내 고향 뒷산 속의 메아리

뒷산 골짜기에서의 메아리는 지금도 살아있을까. 그 시절 나는 곧잘 혼자서 그곳에 가서 산을 향해 무어라 외쳐댔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메아리와 함께 놀았다. 어떤 때는 노래도 불렀을 것이고 어떤 때는 소원을 외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속 상해서 울적했을 적이면 줄이 서지 않는 말씨로 울부짖기도 했을 것이다.

그 시절, 그 메아리가 그림다. 사방이 각박하게 치닫는 현실의 모서리에서, 그리고 하늘이 기울어 도는가 싶게 현기증이 아찔할 때마다 그 메아리가 그림다. 어떤 참이면 물기에 젖은 듯도 싶고 마알간 떨림으로 사라지기도 하다가 나중엔 꼭 돌아와 나를 확인시키던 메아리가 그림기만 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엔 메아리가 없다. 그래서 서로들 차단되어 살며 공감(공명)을 잃고 제 잘난 이기(利己)로 외로운 성주가 되어 사는 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역겨운 당착의 현실이며 그 소용돌이인가.

오늘도 나는 메아리가 그리운 신념으로 하루를 지낸다.

지방문화원 신임원장

서천문화원장 양수철씨



서천문화원은 1월 28일 문화원에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철(梁壽澈)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1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2백여 명의 재직회원 중 12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압도적인 신임 투표로 선출된 양원장은 1959년 생으로 서천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천지회장과 중앙회 홍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뉴스서천 대표이사로 있으며 하늬회 회원으로 매년 그룹전을 열고 있는 화가이기도 하다.

양주문화원장 이흥일씨



양주문화원은 1월 16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목요상 국회의원, 임충빈 양주시장, 김완수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관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흥일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흥일 원장은 1941년 생으로 경동고·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71년부터 조양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2000년 8월 동교 교장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30년간을 교육계에서 일해 오는 동안 향토사 편찬사업과 문화원 운영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광명문화원장 안수남씨

광명문화원은 2월 3일 철산동 소재 만추뷔페에서 이 지역출신인 전재희 국회의원과 백재현 광명시장, 남궁진 전 문광부장관을 비롯해서 3



백여명의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구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1월 9일 제13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안수남 원장은 1956년 생으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현재는 우리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만학도로서 남다른 향학의지를 갖고 있다.

광진문화원장 심경모씨



광진문화원은 2월 3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내외 귀빈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심경모(沈敬模)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전임 이동표 원장의 사임으로 만장일치에 의해 선임된 심 원장은 1939년 생으로 인창고·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라다이스투자개발(주) 기획실장과 Kenya 지배인, 계열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거쳐 대표이사에 올랐으며 한때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회장으로 있었으며 현재는 (주)파라다이스 부회장 겸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성환문화원장 송용삼씨

성환문화원은 2월 27일 천안시 문예회관에서 내외 귀빈과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해두 이임원장과 송용삼(宋龍三) 신임원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송용삼 원장은 1952년 생으로 성환축산고를



졸업한 후 가축인공수정사로서 천일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해 왔으며 대영전기공사 대표와 성환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1996년부터는 성환문화원 부원장으로 문화원 운영에 참여해 왔다.

군포문화원장 송윤석씨



군포문화원은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원장에 송윤석(宋胤錫)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1936년 생인 송 원장은 군포시의회 부의장과 미창기획출판사 대표, 군포YMCA 이사장,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군포시 시정발전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해부터는 군포문화원

부원장으로 문화원운영에 기여해 왔다.

한편 송요태 전임 원장은 문화원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음성문화원장 김상의씨



음성문화원은 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신임 원장에 음성향토문화연구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상의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2월 6일 많은 회원과 문화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 원장은 1952년 생으로 음성고·건국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음성청년회의소 회장과 한국BBS 음성군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음성농협조합장과 음성군 과수작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문화원 청월대보름 축제

통영전통연날리기 및 민속놀이경연 - 통영문화원

통영문화원은 제22회 통영시장기타기 전통연날리기 및 민속놀이경연대회를 통영항 여객센터미널에서 개최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인 승전무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벌어진 이번 대회에서는 통영문화원과 문화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 요우가이키현 관계자들과 2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날리기 단체전과 개인전, 물이연대회를 통해 끓여 먹기 형태의 연날리기를 비롯해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행사 말미에 개최된 달집태우기에서는 김세운 원장이 '한 해 동안 지역의 무사태평'을 외치는 기



원문 낭독과 참석한 시민들이 각자 소망을 소지에 붙여 행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었다.

‘달맞이 가세’ -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은 대보름날 오후 2시 반부터 시흥시 포동시민운동장에서 농촌지도자 시흥시연합회 및 시흥시 생활개선회와 함께 대보름행사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귀밝이술과 땅콩, 호두 등 부럼과 전통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천동서예반 회원들이 ‘立春大吉’이라는 붓글씨를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써주기도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길놀이와 지신밟기, 터울림굿, 액연날리기에 이어 투호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마당에 이어 달집태우기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소리를 가득 매단 달집이 활활 타오르는 순간 한 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진강 통일연날리기축제 -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원은 2월 8일(일) 오전 11시를 기해 문산읍 임진각 경내에서 제4회 임진강 통일연날리기축제를 가졌다.

민족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놀이문화의 계승과 온 국민의 통일염원을 모으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이 날 축제에서는 통일기차연과 봉황연 등 대형 창작연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날린 수백개의 가오리연을 비롯한 방패연들이 하늘 가득 날아 올랐다.

전통 민속놀이인 엿치기와 떡메치기 등 체험마당을 통해 가족들의 화합과 사랑의 장을 마

련한데 이어 행사장 한편에서는 북한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공급될 결핵약성금 마련을 위한 간이식당이 운영되어 총 80여만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이를 관련 국제기부단체인 유진벨재단을 통해 파주시와 인접한 북한 개성시 판문군에 전달기로 하였다.



대보름 달맞이축제 - 홍천문화원

홍천문화원은 정월 대보름 오후 5시 둔치주차장 옆 홍천강변에서 제5회 휘영청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를 열었다.

겨레의 정서가 스민 정월대보름의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을 계승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공동체적 신명과 기원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홍천문화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한해의 시작과 소망을 기원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참된 가치를 확인코자 사물놀이, 민요공연, 봉산탈춤 등 한 해를 보내는 마당과 새해를 맞는 비나리마당으로서 달맞이 기원제, 강강수월래, 지신밟기,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를 비롯해서 윷놀이, 투호놀이, 널뛰기와 6백인분의 오곡밥 나눠먹기, 부럼 함께하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민속한마당 -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은 홍성풍물연구회, 경기민요보



존회 등과 함께 대보름 전날 오후 2시부터 의사총 옆 논과 하천변에서 제3회 군민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의 일환으로 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지신밟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이 날 오후 5시 반부터는 풍물패를 앞세우고 군청 앞을 출발해서 조양문과 김좌진 동상, 의사총으로 이어지는 시가행진을 하고, 오후 6시부터는 부럼깨기와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연과 쥐불깡통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참여함으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 민속을 다채롭게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다.

거창 대동제 - 거창문화원

거창문화원은 거창대동제위원회와 함께 거창고 영강둔치에서 제13회 거창대동제를 개최하고 현대문명 속에서 잊혀져가는 세시풍습놀이 큰잔치를 마련하였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윷놀이를 비롯하여 국악과 민요공연, 합토제 및 달집태우기, 민속놀이 체험코너, 거창의 세시풍속 알리기마당, 군민건강 다리밟기, 지신밟기, 부럼·귀밝이술 먹리기코너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전통민속축제큰마당 - 의령문화원

의령문화원과 의령청실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10회 정월대보름 전통민속축제 큰마당이 오전 10시부터 남산천 둔치에서 많은 군민이 참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의령군청 올림픽 매구패와 각 동별 풍물패에 의한 지신밟기와 제방과 주차장에서는 연띄우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자치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가 개최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귀밝이 술마시기와 부럼깨물기에 이어 오후 4시경에는 한복 차림의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태민안과 향토번영,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올리고 뒤이어 매구패들의 한마당 농악놀이와 함께 달집태우기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가운데 축제의 막이 내려졌다.



중동당산제 - 군산문화원

군산문화원은 대보름 하루 전날 오후 2시, 중동경로원에서 중동당산제보존회 회원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산제례를 가졌다.

중동당산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군산지방의 동계로서 마을의 액을 몰아내고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일제시대의 문화말살정책의 과정을 거치으면서 또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많은 애환을 낳기도 하였다.

이 날 참석한 관계 인사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이 점차 여유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기풍이 생기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당산제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진해 발전기원제 - 진해문화원

진해문화원은 1월 1일 오전 7시 천자봉 만장대에서 5천 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16만 진해시민의 안녕과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제5회 새해맞이 진해발전기원제를 열었다.

문화원 소속 천자봉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단공, 판굿, 북춤 등 식전공연에 이어 내외 귀빈이 지켜 보는 가운데 박차생 문화원장의 시민현장 낭독, 김병로 시장의 기원문 낭독과 신년 덕담, 축시낭송, 만세3창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문화원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 차와 탁주 등 푸짐한 음식도 대접하였다.

세계 선사유적 탐방 특별사진전

-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양양문화원 고경재 원장의 세계 선사유적 탐방 특별사진전이 지난 1월 3일부터 1주일간 프레야 낙산리호텔에 이어 1월 25일부터 10일간 서울 관악문화원에서 열렸다.

고 원장은 양양 오산리 신석기 유적발굴 당시 고고학과 인연을 맺어 온 향토사학자로서 이번 특별전은 유럽 여러 나라와 중국 및 미국의 선사유적을 직접 답사하여 사진으로 담은 60여장의 생생한 현장 기록이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 화랑과 LA 등 외국 순회전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 프랑스 기석문화의 하나인 터널식 고인돌.

중국 고구려사 왜곡 시정 결의문 채택

신임 부회장에 이만희 원장, 감사에 최종수 원장



△ 총회를 마치고 140여 문화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 만 희
부회장



최 종 수
감 사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전국 문화원장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과 임원보선을 실시했다. 또 최근 중국의 이른바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 총회 광경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설립

이날 권용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문화원을 활성화하고 향토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뒤지지 않는 창의적인 발상과 정책개발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합회 부설 ‘문화정책연구소’를 발족시키고자 한다면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모든 정책 대안의 개발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합리적인 운영과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분석을 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회장은 또 지방문화원의 정보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어떤 단체보다 강력한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문화단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가한 문화원장들은 200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안과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원 보선에서는 결원 상태인 연합회 부회장에 이만희 경북지회장이 선출되었고 임기가 남아 있었던 한만규 감사는 여주문화원장 임기만료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최중수 과천문화원장을 후임 감사로 선출했다.

감사보고 통해 ‘예산·결산안 적정’ 보고

이날 김희규 감사(영암문화원장)는 감사보고에서 2003년 결산안이 세입·세출예산회계 사무처리에 맞추어 엄정하게 집행되었다면서 신임회장의 노력으로 4억4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방문화원 관계자 연수, 지역문화행정가 대토론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보고했다.

이어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정사항으로 ①지출결의서 작성과 관련, 발의 원인행위 등이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급인 구분과 계약관계 증빙서류 미비 ②일부 회계관련 문건 미비 ③연합회장 인수인계시 제예금 잔고증명서 미비를 지적했다.

연합회 제43차 정기총회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①〈우리문화〉가 전국 문화원 홍보지임을 감안, 문광부로부터 예산중액을 협조받아 수준 높은 지역문화 전문지로 육성할 것 ②사무국장 인건비의 지속적 지원과 아울러 시도지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문광부에 건의 ③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명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종전과 같이 당해연도 10~11월 중 각 시·도에 통보토록 문광부에 건의 ④연합회 회원 납부금 중 회비 1,895만원, 복지기금 475만원, 회관건립기금 905만원이 체납되었는바 원인 등을 규명하여 연합회나 도지회에서 행정지도 및 이해와 권고를 철저히 하여 체납회비 징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총회에서 의결된 2004년 연합회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면 △권역별 향토문화 발굴·진흥 육성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육성지원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정보화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 △교육사업 △홍보 및 발간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향토문화육성 토론회 및 프로그램 외부용역

이중 권역별 향토문화 발굴·진흥 육성사업은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독창성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 10개 권역별로 나누어 올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다. 올해는 각 권역별로 '지역의 역사성·전통성·독창성을 담은 향토문화개발'을 주제로 향토문화개발 토론회와 향토문화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 수집 계획서 등을 외부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민족문화 정체성 확보와 문화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향토문화 발굴 육성으로 지역주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육성 지원사업은 비상설로 운영되는 가칭 '문화동력연구소' 설립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대안 발굴 제시, 중장기 발전방안 마스터 플랜 용역 및 생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화분권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기관에 '문화원 평가 분석' 용역을 의뢰,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전통문화제전' '국민의 시 낭송의 밤'도 개최해 문화가족 화합 도모와 전통문화 발전은 물론 문화원 대국민 홍보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토문화공모전 전문가와 워크숍

매년 개최하는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은 올해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모 시상과 동시에 향토문화 발전방안에 대해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다. 향토문화의 발굴과 학문적 정립을 통해 올바르게 체계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향토사가의 연구의욕 증진 및 연구자의 활동범위 확대와 향토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보화 사업은 상반기에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 것을 비롯 사이버문화관 운영, 지방문화원 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된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원간 정보망 구축으로 정보 교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문화교류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우수문화원 종사자 해외연수 외에 주한 외국문화원과 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국제간 교류증진으로 민족 전통문화의 해외선양과 기반 구축을 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국장 대상 문화전문교육 위탁 실시

또 지방문화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 전문적인 교육을 4박 5일간(4월중 예정) 실시해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문화원장 연찬회(1박 2일) 및 사무국장 연수(3박 4일), 간사 연수(1박 2일)도 실시해 문화기획력과 행정력 향상으로 문화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전문지식 함양과 마인드 구축으로 지역 문화 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정책개발과 정보교류를 통한 문화원 균형 발전도 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정보 교류 확대, 문화원 사업 홍보를 위한 격월간 <우리

문화> 발간과 지방문화원 현황 등을 담은 문화원수첩 발행사업도 예년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관·규정을 보완하는 작업과 문화원 미설립 15개 지역에 대한 설립을 유도하며 국고 미지원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고구려사 왜곡' 연합회 결의문

한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는 또 '향토사료조사수집비의 지원 재개' '지역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공익요원 활용책' '〈우리문화〉의 지방문화원 임원에게 송부 요청' '정부의 정보화산업기금 확보 및 지방문화원 지원 필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총회 지방 개최 필요' 등의 논의가 있었다.

(편집부)

연합회 소식

회장단, 운영위원 연석간담회

전국문화연합회는 1월 9일 오전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신년하례를 겸한 회장단과 운영위원 연석간담회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지난해 주요 사업실적과 신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연합회 제43차 정기총회

2004년도 제1차 이사회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월 15일 11시부터 프레스 센터 19층에 있는 국화홀에서 임원 20명(이사 19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가졌다.

권용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문화발전 증장기계획 수립 중 지방문화원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대한다고 전제하면서 금년에는 연합회 자체로서도 부설 문화연구소 발족을 통해 조직의 체계나 사업의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서 지방문화원의 정보화 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부의안건으로는 2003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



과 200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제43차 정기총회 개최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며 중국 정부의 고구려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총회에서 결의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보존·전승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강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반역사적인 고구려사 왜곡을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중국정부는 2002년 2월부터 5년 기간으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통해 동북(만주)지방의 역사와 제반 현

상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인의 뿌리는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고구려 건국 당시의 영토 및 기본 관할범위가 중국경내라고 왜곡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책봉을 받는 종속관계 운운하면서 고구려 멸망 이후 대다수의 유민이 중국의 한족(漢族)으로 편입했으며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도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목적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화적 국가주의를 통한 소수민족의 독립 의지와 민족분쟁 차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한반도 통일 이후 불거질지도 모를 영토문제를 미리 차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중국 권력 서열 7위 안에 드는 중앙위 정치국원 겸 사회과학원장을 비롯, 동북3성(헤이룽장·지린·랴오닝)의 최고위 관료 등 행정조직과 대학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에 편입하고,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도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예맥족과 한족(韓族)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조선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의 역사로 계승되었다. 7백여 년간 만주지역과 한반도를 활동무대로 강성한 국가를 형성한 고구려사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구려가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에 불과하다면 반만년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는 2천년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국한된다.

지난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자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중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고구려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는 사실(史實)에 근거,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함은 물론, 진실을 왜곡한 역사는 허구에 불과할 뿐 역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양국의 외교적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패권주의적 고구려사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의 역사왜곡 중단과 올바른 한국사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은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을 한국정부에 사과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외교통상부는 중국정부에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통해 역사왜곡을 시정토록하라.
1. 정부는 고구려사 및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국책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중등교육 교과과목 중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라.
1. 우리 지방문화원장 일동은 올바른 국사관의 정립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 문화·역사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2004. 1. 29

전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종철 총장 - 문화 불씨를 살리는데 큰 공헌해온 문화원

임헌영 교수 - 지역마다 문화원들이 적극 대처해서 지역특성 개발해야

이흥재 소장 - 지역문화도 정보화의 옷을 바꿔 입는 과정 필요

갑신년 새해를 맞아 특별기획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전통문화학교 이종철 총장과 임헌영(중앙대, 한국문화평론가협회 회장) 교수, 이흥재(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과의 신년정담을 마련했다. 이흥재 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에 따른 전국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분야 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 1월 9일 연합회 회의실 - <편집자>

이종철 : 갑신년 벽두에 한국문화의 참뜻이 담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임헌영 교수님과 이흥재 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문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을 맞으면서 전통문화 육성정책과 미래 전망을 논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시다.

참여정부는 국정목표로서 더불어 사는 균형과 발전의 사회,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삶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발전을 위해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를 가지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택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과 참여와 분권에 따른 문화행정 혁신의 틀 속에서 지역문화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중심이 된 생활문화의 육성 정책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이라고 할까 전통문화 육성에 대한 현장의 전문가로서 참여정부의 전통문화에는 어떤 위기가 있고 또 그 해소책은 무엇이 있는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각을 이흥재 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가 재평가 받는 사회분위기에 정책 초점 맞추어야

이흥재 : 전통문화에 관한 정책이 참여정부라고 해서 특별히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전통문화



△ 이흥재 소장, 임현영 교수, 이종철 총장(왼쪽부터)

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 발굴하고 현대화하고 또 교류하고 그 다음에 조사, 연구, 축적하는 기본적인 역할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관한 정책은 변함이 없이 오히려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는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전통문화의 기본인식들이 퓨전화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발굴,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오히려 전통문화가 젊은 층으로부터 새롭게 재평가 받는 자연스러운 사회분위기에 정책이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 예술의 흐름과는 달리 전통문화

의 특징적인 것은 그것을 보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보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규제가 따르게 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콘텐츠 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전통문화가 비약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종철 : 문화정책을 어떤 시각에서 분석 평가하며 방향은 목표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대를 읽는 문학평론가이신 임현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현영 : 지역문화는 전통문화이고, '전통문

화' 하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도 별 차이는 없겠는데요.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부는 전통문화를 없애버렸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5,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도 지역문화를 무시하고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다가, 우리가 조금 살게 되면서부터 지역문화를 개발했고 마침 80년대 이후에는 세계 전체가 글로벌 로컬리즘이라고 해서 '세계화 속의 지역'이 되면서 우리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지역문화발전이 되었는데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어느 정당이나 문화정책은 민족문화 예술육성 지원정책, 대중 향수를 위한 개발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입구에는 '문화의 도시' 혹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별로 잘 안배된 문화가 있었는가, 지역마다 하고 있는 것을 중앙부서에서는 종합하기 바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창동 장관 취임 이후 18개의 특수한 지역문화권으로 배분하는 것은 그나마 범국민적인 시각에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싹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중철 : 임교수님께서 설파하였듯이 한국문화는 7,8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세계화나 지방화나 선택에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의 모두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교수께서는 현대 전통문화의 위기이다, 이는 지역문화의 핵심 주도세력인 민중들이나 농민들의 생활양식은 변화되고 있고 또 현대화 속에서 전통문화의 정통성이나 포용성이 소멸된

다 하셨습니다. 농촌사회나 산업사회의 문화변동 속에서 전통문화는 위기를 겪고 있고, 농촌의 도시화, 노동문화의 일반화 속에서 지방문화의 공동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의적인 문화양태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이흥재 박사께서 좀...

지역문화에도 정보화가 절실

이흥재 : 최근 지역문화정책의 기저라고 할까요. 목표를 분권, 참여, 자율로 정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이 지역문화에 와닿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문화의 부흥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확대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역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오랫동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문화에 대한 애정과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지역의 문화를 가꾸는 문화정책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정보화와 관련시켜서 보면 최근의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세계화의 문화적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지만 농촌지역도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서 많은 문화적인 격변을 다양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회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문화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은 상당한 위기감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이자 위기감을 동시에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정보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문화를 정보화하는 쪽

에 새로운 대안이 있겠다 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꼭 공간에, 시간에 맞추어서 가야만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약성을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세상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정보화이기 때문에 지역문화도 정보화로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디지털화라는 구체적인 표현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정보서비스하는 지역문화유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최근에 개통했습니다마는 집에 앉아서 전국의 박물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소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자율에 바탕을 두어야 되고 수단방법으로는 정보화에 바탕을 두는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접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 : 이 박사님께서서는 문화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의 조사, 연구, 기록보존의 바탕 위에서 문화정보화 또는 문화산업화 쪽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것은 곧 삶의 질의 향상이고 여기에는 문화산업 진흥에 근본이 되는 순수문학과 순수문화 진흥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에 있어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오늘날 문학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학의 소명 내지는 공헌이나 기대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전통문화와 관련된 향토문화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임현영 교수님께서 짚어 주시지요.



△ 임현영 교수 - 지역문화의 주체성이 무엇이나, 특성이 없어요.

문화원의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시급

임현영 : 이 소장님이 말씀한 것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향토문화라는 것이 하드웨어로 보면 그러한 장치가 필요불가결하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 문화의 주체성이 뭐냐?’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의 주체성이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 모든 도의 주체성과 똑 같다는 것이고, 다만 수도를 끼고 있는 것 외에는 특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맡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정보화하느냐 했을 때 아까 지역마다 문화예술도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봄 가을로 적당히 축제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문화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아무리 하드웨어를 잘해도 한두 번 참석해 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미 없더라 하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시민 전체가 그 날을 기다리고 도시 전체가 떠들썩한 분위기로 살려나가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 특성을 살려서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문광부에서도 ‘한 지역 한 장기 살려라’ 하는데 사실 살릴 것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2백 몇 군데의 지방문화원 숫자처럼 많은 품목이 없거든요. 그것을 몇 개로 분류해서라도 특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종철 : 지난 40년 동안 한국문화는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문화, 또 미국 주도의 병영문화가 판을 쳐왔습니다. 이러한 문화불모지에서 한국의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미술의 뿌리를 찾으려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위 중앙정부와 시민을 잇는 역할을 한 것이 전국의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열악할 뿐더러 현장의 문화불씨를 일으키는데 인재난, 시설난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라고 하면 보다 더 현장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과 또 문화현장의 총체적인 그림과 철학, 역사서로서 지역민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지원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문화불씨를 살려 오는데 큰 공헌을 해온 문화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흥재 소장께서 문화원의 공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흥재 : 마을 어귀의 숫대처럼 묵묵히 지역 문화를 이끌어 온 문화원들의 성과는 한마디

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최근에 관련 유사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보편화되면서 빛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도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가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문화원이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문화원은 다른 문화활동 단체들의 아류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들이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전해 나가야 그동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영 : 지금 ‘영광’이라고 하니까 문화원이 아주 좋았을 때가 있었나요?

이흥재 : 좋았다고 하는 것이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라고 말한다면 6,70년대에는 독보적으로 활동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임현영 : 그 때는 예산지원이...

이흥재 : 예산면에서는 지금이나 그 때나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일을 해서 지역주민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정신문화를 일깨우는 문화적 전통

이종철 : 문화원은 현장에서 한국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온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후 우리 국민이 문화를 보는 눈이 높아지고 요구는 더욱 많아졌는데, 동반성

장을 못하고 인류학자 달턴이 얘기한 대로 ‘기계문명은 발전했는데 정신문화가 뒤따라가지 못했다…’ 문화지체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문화전문가나 문화축매자도 없고 거기에다 적절한 예산지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과 더불어 지역민이나 출향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역 전통문화가 우리를 뒤돌아 보는 역사와 전통의 거울로서 지역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추억을 일깨워 주며 지역의 자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화기반이 조성될 때 문화의 분권화라고 할까. 또 농어촌 소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는 우선 농어촌을 살려야 하는데 주변 환경은 매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존속되었던 음악, 미술, 공예, 전통문화가 농어촌 생태문화와 같은 범주에 통합되어 어우러지는 문화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문화, 사회문화, 정신문화라고 할 때 정신문화를 일깨워 주는 것이 문화적인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전통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문화적인 전통의 어떤 부분을 찾아서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임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임현영 : 경제적인 성장에 걸맞게 문화정책이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수준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의식주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실제로 머리 속에서 문화예술적인 향수는 40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이 낙후하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사회 계도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일차적



△ 이흥재 소장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문화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으로는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이지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를 외래문화와 걸맞게 나가야 되고 정책적으로는 그것을 하려는 콘텐츠를 하드웨어로 맞추어 주는 것은 정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를 문화예술인들이 개발을 해도 전국적으로 콘텐츠를 실현하고 대중화시켜서 생활을 향수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 어느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이 해야 될 기능과 목적, 예산, 역할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침 선거철이 닥쳐오는데 선심용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자치라는 것이 지방자치이기도 하지만 같은 지방 안에서 영역별 자치도 되어야 합니다. 문화 같으면 문화원에 상당한 위임을 해서 지역 행정단위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문화에 관한 것은 어느 문화기관이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문화원은 손발

뭉어 놓고 문화예산 지출은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선거용, 인심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 정부와 손잡고 일해야 할 문화원

이종철 : 문화와 행복은 같이 나누고 누릴 수록 더 커집니다. 전국의 문화시설과 문화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화지식이 생산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알뜰하게 국민과 더불어 나누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삶이 곧 문화요 문화가 곧 삶이란 패러다임이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 주민과 가까운 '문화원을 통한' '문화원에 의한'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차원 높은 국민문화 주권시대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담아 두는 그릇으로서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향토관 등이 정부의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생산적인 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바람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서 '오늘 문화현장'이라고 할까요, 문화시설의 생산적인 활용에 대해서 고견을 좀...

이흥재 : 문화 예술부문은 항상 재정적인 문제로 아쉬움이 많은데 지역의 문화시설의 이용도 역시 재정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 정부체제하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균등하게 배분해 주고 심지어는 문화를 균질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까지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고 또 지역마다 문화수요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

문화원 지원예산이 거의 없어질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원은 지역정부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자치단체와 문화원 그리고 관련 문화단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에서 문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문화시설의 이용도면에서도 그냥 와서 구경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문화원이 만들고 주민들은 와서 참가만 해라, 관람만 요구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같이 만들면서 같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참여형 지역문화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가를 하게 되고 문화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고 필요하면 전문 문화공간도 지방 자치단체가 만들 수가 있고 또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용도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이용도가 높아지는 식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가 문화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지역의 모든 활동의 중심성도 가지고 있고 창작자나 향유자들의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공공성이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의 가치성과 공공성, 중심성이 같이 문화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협동의 시대를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역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문화와 순수문화는 분리된 것 아니다

이종철 : 불교에서 선을 행하는데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다고 해서 무지선 무처선(無知

禪 無處禪)의 화두가 있습니다. 21세기는 GNP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문화충만족도가 빵의 논리를 뛰어 넘어서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절대왕정 전제 국가 또는 군부 폭력국가에서 왕이나 독재자의 힘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부수적인 정책꺼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문화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민족의 창조성을 일깨우며 국민의 통합과 대화와 소통, 삶의 여유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상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일상적인 생활문화와 순수문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득 2만불시대에 앞서서 국민의 문화적인 삶이나 철학 또는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학평론가로서 또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임 교수님께서 우리 생활문화와 순수문화예술이 어떻게 만나고 삶을 지혜롭게 할 것인지 전망해 주셨으면...

임현영 : 내용에서는 대중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달라지고 공존의 단계에까지 들어갔고, 이 단계가 넘어서면 우리 국민들도 지방까지도 대부분 순수문학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지요. 왜냐 하면 60년대 드라마는 저속했는데 지금은 거의 명화 수준의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소설에 못지 않은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되었고 또 노래방에 가보면 상당한 수준의 가곡까지 함께 부르고 지역별 문화예술회관도 대중문화보다도 순수문화의 공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21세기 초기의 우리 문화의 모습



△ 이종철 - 낮잠 자는 사람의 권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속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상업주의적인데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국민들이 향수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봉사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따라 옵니다. 일본의 경우 고교야구가 승리하는 지역의 경제가 호황을 맞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문화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도 지역에 따라서 하면 질의 향상과 경제의 향상이 동반된다는 사항을 우리 문화인들이 잘 콘텐츠를 채워 나가야 되고 또 채워 준 콘텐츠를 각 지역 문화원들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일체화시키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문화커뮤니티와 봉사단체 활성화 기대

이종철 : 권용태 회장님께서 일상적인 생활

문화가 예술을 지탱하고 또 비일상적인 문화에서는 일상적 생활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의 일관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는데, 2004년 노무현 참여 정부는 생활문화와 순수문화가 어떻게 상승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흥재 박사께서 한번 짚어 주시지요.

이흥재 : 방금 말씀대로 비일상적인 순수예술이 결과적으로 생활문화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문화예술이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문화예술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두 가지 서로간의 상생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문화이고 순수문화예술이 합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가 옛날에는 자연, 혈연, 학연으로 생활 속에 녹아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비슷한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문화를 공유한다든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문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없어지지만 이런 커뮤니티문화는 더 새롭게 많이 생겨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도 이런 커뮤니티 문화시대가 도래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생활문화가 생활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향연 동호회를 만들어서, 연령과 지역과 학력을 초월하는 모임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관람을 같이 한다든가 관극을 한다든가 미술전시회를 다니고 여행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아마추어활동 동호회로서 문화예술에 봉사도 해줄

수 있고 잠재관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창조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시대가 와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종철 : 앞으로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 여가와 자기개발을 위한 생산적 에너지가 요구되고, 이는 시민문화 역량을 길러 주는 중요한 SOC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2개의 국·공립도서관, 339개의 박물관, 13개의 문예회관, 123개의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할 때 공연장은 7분의 1, 박물관과 미술관은 1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통예술공연이나 문학행사, 무용부문의 관객이 15.4%에서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6개 광역시가 전국 인구수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술전이나 국악, 무용이 64%에서 80%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향유에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역민에 의한 지역의 특수화로 문화를 끌어 올렸으면 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발전축에 놓은 후 우리의 생로(生路)와 미래를 열어 가는 강한 지도자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문화가 더욱 발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좀더 정직해지고 정확해지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강한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모아질 때 색깔 있는 예향, 예도가 될 것이고 문화경쟁력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화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의 실천적인 내용물은 문화내용이 국민 속에서 향유되면서 사랑받을 때

정보화와 국제화 그리고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지방화 속에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의 생산자이고 분배자이고 혈맥이라 할 수 있는 문화원이나 문화가족 또는 참여정부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시면서 대화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활 속의 문화활동 문화원의 소임

임현영 : 문화정책은 어느 정치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21세기 모든 민족 국가들의 당면한 과제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개념으로는 문화예술정책이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바로 경제와 국력과 국민의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정책의 성패에 따라 정권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수치로 보면 문화관광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닿는 문화정책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저는 오히려 각 지역문화원장들이 잘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이 주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연합회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원을 맡고 있는 문화외적인 요소에서 각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세기를 만들어 가는데 금년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흥재 : 문화원들이 그 지역 문화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 왔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시민적 공공성이 형성되는 디딤돌 역할을 문화원들이 해온 것은 훌륭한 공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는데 문화원들이 더 역할을 해 주는 소명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문화원이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종철 : 예, 고맙습니다. 성장, 분배, 문화, 환경이 함께하는 문화국가를 표방한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문화가 하부구조가 아니고 문화 자체가 사회자본의 이념적 심층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와 실천력이 응집된 국민의 희망이 문화에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지역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누는 문화원의 역할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시간과 세월이 기다려 주지 않고 낮잠 자는 사람의 권리 또한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문화생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손바닥이 돌이 만나야 대화와 소통의 상징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와 문화원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문화라는 말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 생활을 하고 또 문화지킴이가 되어 역사와 만나고, 또 문화와 만나는 조화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년 문화정답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교육, 재미보다 의미를 찾는 교육



김 보 성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대학장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2002년 12월 6일 문화예술계와 교육계 인사 1,295명의 일원으로 ‘21세기 문화교육 운동 선언문’ 발표에 동참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문화교육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지식정보의 가뭄보다는 오히려 홍수가 문제가 되고 있어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획득과 주입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지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며 창의성이다. 복합적인 인간능력을 단순화하는 현재의 관행을 극복하고, 지식교육·인성교육·예체능교육의 균형발달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이 교육체계의 이념을 문화교육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신체적, 감성적, 윤리적, 지적 복합능력의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삶의 방식’이

자 ‘인류학적 문화다양성’ 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와 공공문화시설

국공립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시설은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사설 문화시설과는 설립 목적과 주기능이 다르다. 주민자치센터 역시 공공시설이다. 그런데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좌와 공공문화시설들의 강좌는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유사한 사례도 많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주고객층인 주부들을 상대로 취미 또는 부업강좌와 주부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의 설립 목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좌프로그램이 매우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백화점 문화센터와는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 공공문화시설들의 프로그램이 백화점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공공문화시설과 공익문화단체의 역할은 바로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능동적인 문화수용자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설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좌와 다를 바 없고 심지어 외국어회화와 컴퓨터 강좌 등 사설 기능학원의 영역을(불공정거래로)

침해하는 역기능까지 낳고 있다. 이 잘못된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봉사가격으로 운영됨을 자랑하는 게 대다수 공공문화시설 운영자들의 인식상태이다.

공공문화시설의 강좌개설의 방향은 어떠한지 할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화소양이지만 사실 문화시설에서는 사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설되지 않은 문화예술의 공적인 영역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오래된 지혜가 농축된 전통문화와 관계된 강좌들, 미래에 대한 혜안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 그리고 시낭송모임 등... 갑자기 공공문화시설 운영자들의 향의가 들리는 듯하다.

그런 재미없는 강좌에 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며...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까지 '재미있는' 강좌를 한 결과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해답은 '재미'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적인 감성과 안목이 성숙할수록 '재미' 보다는 '의미'를 찾아 마니아가 되는 능동적 문화수용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각각의 공공문화시설과 공익문화단체는 저마다 설립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문화의 집'은 인근 주민들의 문화자치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비교적 선진적인 설비를 갖춘 문화공간이다. 이 공간을 통해 주민들은 생활문화의 풍부한 경험을 스스로 만들고 경험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다.

또 '문화원'은 문화영역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사실 이러한 광의의 규정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문화단체와 차별화되는 고유영역으로 특히 향토문화의 발굴과 복원이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 있다.



△ 연극공연을 마치고

이처럼 공공문화기반 시설별로 설립 목적에 충실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에 예산을 쪼개서라도 우선 투여해서 특성화를 이루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문화시설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상호 모방하기에 급급하여 설립 목적과 무관한 강좌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이 거의 모든 문화시설에 일반화되어 있다.

좋은 강좌와 나쁜 강좌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에 절대기준이 있을 리 없다. 사실 컴퓨터학원의 강좌를 공공문화시설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값싸게 개설하더라도 '나쁜 강좌'가 된다. 그러나 대상을 영세민 자녀 또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무료)특강으로 제한해서 하면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문화시설의 '좋은 강좌'가 될 것이다.

사설독서실의 기능을 공공문화시설에 들어

문화원 강좌의 차별화 전략



△ 어린이 풍물패 교실



△ 서예대전 출품 심사

놓으면 아무리 그것이 지역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공부방으로서 순기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시설이 된다. 임대료와 전기수도세 그리고 설비비 등의 부담이 없는 공공문화시설과 경쟁해 살아남을 독서실사업자는 절대 없다. 또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민간영역의 사업을 퇴출시킬 권리를 공공문화시설이 갖고 있지도 않다.(그러나 현실은 마치 무제한의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

덴마크의 시민대학 강좌 중에 ‘철학이 있는 프로그램’에는 살사춤 강좌가 있다. 난데없이 철학프로그램에 댄스강좌라니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댄스강좌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통합사회 건설, 즉 회교도가 대다수인 이주민과 덴마크주민들 사이의 갈등 해소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주제가 녹아들도록 마련된 춤 강좌인 것이다. 좋은 강좌가 아닐까.

생활문화란 수용자 스스로 시간과 노력과 비

용을 들어가며 자신의 삶의 영역에 문화예술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의 대부분은 상업적인 문화시장에서는 영리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개설되기 어렵다. 그러나 인간답게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많은 영역이 있다.

공공문화시설의 강좌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공공문화시설로 하여금 스스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공재로서 문화의 역할을 기대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설립 목적에 충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구·개발하려는 노력이 모든 공공문화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려는 공간운영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문화원은 ‘무엇을’, ‘왜’로 고민해야...

여러 문화시설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문화에



△ 생활영어 교실



△ 역사문화특강

술강좌는 예를 들어 악기를 가르치고 그림을 가르치는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으로 치우쳐져 있다. 주로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급급한 것이다.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교육이 사설학원의 그것과 다른 것은 ‘어떻게’라는 방법론보다는 바로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즈음 천연염색 강좌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경우 대개 천연염색이 ‘어떻게’하면 잘 물들게 할지를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교육에서는 ‘무엇을’, 그리고 ‘왜’를 가르치려고 한다. 염색의 과정을 통해 자연생활 속에 깃든 전통적인 우리의 색감과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일상 생활 속에 우리의 색감을 살려내게 됨으로써 정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강좌가 되는 것이다.

공공문화기반시설과 공익문화단체의 문화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설립 목적에 합당한 프로그램들이 우선 충실하게 개발되도록 정책

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능강좌 및 취미·부업강좌는 민간 상업영역의 주된 역할로 남겨두고, 소위 영리사업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인간다운 삶의 풍부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영역의 강좌를 중심강좌로 개설하고 특성화된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축적해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들 25세에서 64세까지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34%, 프랑스 40%, 독일 3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평생교육’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 조직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주제 중의 하나로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정책상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시기를 대비해 각각의 문화시설마다 저마다의 특성있는 강좌프로그램들이 충실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구려와 우리 역사의 정체성

고구려는 A.D. 705년에 당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고구려의 멸망은 만주땅이 우리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만이 아니다. 고조선도 그 정체성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아니 한국고대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고구려의 유지에 발해가 서서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발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다. 중국은 1980년대에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한족뿐 아니라 55개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모두 중국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활용하려는 고위금융(古爲今用)을 내세우기도 했다. 신중화주의(新中華主義)의 발로임에 틀림없다.



이 성 무



최 광 식



강 현 숙

고구려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 성 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고구려사 왜곡, 신중화주의 발로

중국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어 소수민족들이 독립되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가공할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더구나 이것을 조장하려는 국내외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소수민족 정책을 강화했다. 겉으로는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면서 안으로는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민족구성을 희석시켰다. 그리고 소수민족도 중국 인임을 강조하게 했다.

소수민족 중에 독립의 열기가 가장 높은 곳이 신장·위그루 자치주와 운남성 등이다. 후진타오 중국 당서기는 신장·위그루지역의 성장을 지낼 때 이들의 민족운동을 누르는데 공헌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가 집권하면 중국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리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되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연변자치주의 조선족들이 대거 한국을 왕래하고, 중국에 온 한국인들이 고구려·발해는 본래 우리 땅이었으니 고토회복(古土回復)을 해야 한다고도 하며, 90년대 중반 이후로 탈북자들이 모여들어 조선족의 민족의식이 되살아날 위험이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

리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장·위그루를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자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의 고구려·발해유적 접근을 통제하기도 하고, 이른바 동북3성(요녕성·흑룡강성·길림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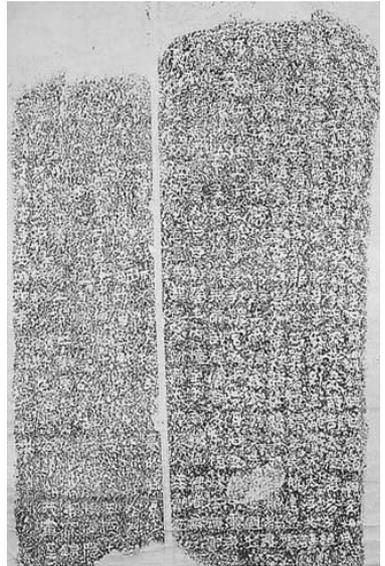
1983년부터 고구려사 왜곡연구 추진

실상 동북지방의 역사와 문화 연구는 이미 1983년 국무원 소속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 생긴 때부터이다. 그러다가 2001년 한국 국회가 중국 동포의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상정하고,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자 2002년 2월부터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이른바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東北工程’)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지리·민족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 가운데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발해 등 한국고대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는 연구를 집중적으



중원 고구려비 비각 △
중원 고구려비 탁본 ▷



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까지 포함하여 200여명이 동원되고 있다. 고구려 연구자가 고작 10여명에 불과한 한국과 비교하면 가히 인혜전술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연구비만은 아니지만 예산을 2002년부터 5개년간 3조원을 퍼붓는다고 한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저서 200여권, 논문 수천 편에 이른다고 하고 벌써 세 차례의 대대적인 고구려학술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당과의 전쟁은 국내 통일전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구려사는 중국사이고, 고구려가 지배했던 충주·조령(鳥嶺) 이북은 중국 땅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고구려 역사 중 국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이전은 중국사, 이후는 한국사로 하려고 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 그 이후도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북한 땅은 다 자기 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만일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국이 통일될 경우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심산인 것 같다.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단하는 ‘고위금용’(告爲今用)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屬國)이었으니 한국사는 몽땅 중국사라고 우길 판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한국사 전체를 중국사 편입 주장할 가능성

뿐만이 아니다. 고구려는 한족(漢族)의 분파라고도 주장한다. 동이족단(東夷族團)인 ‘고이’(高夷)는 고구려족의 연원이고, ‘고이족’의 ‘탄조난생자’(呑鳥卵生子) 설화는 황제(皇帝)의 손자인 전욱 ‘고양족단’(高陽族團)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고구려와 삼한(三韓)지방의 습속과는 다른 것이니, 고구려 족은 중국계라는



△ 오녀산성 저수탱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전옥은 B.C. 3,000년 전의 전설적 존재이고 고구려는 B.C. 1세기경의 나라인데 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고구려는 고씨(高氏)이고 고려는 왕씨(王氏)이니 연관이 없다고도 한다.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의 왕조는 같은 성씨가 계속 연결되었는가?

이로 미루어 보아 ‘동북공정’은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왜곡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학자들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역사를 왜곡했지만 중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집어먹었다가 토해놓기라도 했지만 중국은 이미 1,300년 전에 고구려를 삼켜 이미 소화까지 시킨 차이가 있다. 그러기에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닥칠 중국의 역사왜곡을 더 우려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중국이 일본의 역사 왜곡만 나무랄 수 있겠는가?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 문화유산 지정

그런데 당장 걸린 중국과의 현안문제는 고구려 고분군의 UNESCO 세계 문화유산 지정 신청이다. 북한은 이미 2001년에 북한 내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을 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자 중국 문화부 부장이 북한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중국은 로비를 통해 이를 보류시켰다. 당시에 조사를 담당한 사람은 중국 학자였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둘째, 접근성이 취약하다. 셋째, 주변지역과의 비교가 되어 있지 않다.

우선 어떻게 중국 학자가 조사관으로 선정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고구려 고분을 조사한 일본의 니시타니 다다시(西谷 正)는 고분의 보존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접근성은 북한의 체제상 그럴 수 있지만 개선하면 될 것이고, 주변지역과 비교는 중국을 두고 한 말일 뿐이다. 중국과 같이 신청하면 되고 혼자하면 안 된다는 논리이다.

어쨌든 북한의 등록 신청은 보류되었고 지난해 중국이 환인(桓因)과 오녀산성(五女山城)·고구려유적·광개토대왕비·장수왕릉·국내성 등 ‘고구려 수도와 국왕의 귀족묘’(Capital cities, Imperial Tomb’s in Koguryo)를 신청



△ 새로 단장된 오녀산성

했고,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조사관 니시타니가 지난 9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이를 조사하고 돌아왔다. 가서 보니 집안(集安)·환인(桓因) 지역의 민가 400여채(시청 포함)를 이미 옮겼고, 유적 발굴도 대대적으로 했으며, 유적복원 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전 파리에 있는 ICOMOS에서 북한·중국의 고구려 유적들을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전례로 보아 등재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의 네티즌들이 관계관들에게 중국에 항의하는 메일을 많이 올려 등록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국의 과도한 주장이 정치적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와 외교 협력 통해 대응책 모색

을 6월에 중국 소주(蘇州)에서 열릴 세계유산

위원회(WHC)에서 고구려 유적이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 중국은 이것을 근거로 고구려·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광분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무작정 불편한 관계로 지낼 수도 없다. 중국은 인접국이고, 수출 1위 국가이며, 6자회담도 걸려 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고구려문제는 학문적으로 풀어야 한다. 동북아연구소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기르고, 자료를 모아 우리의 주의·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일·러·유럽과도 공조해야 한다. 중국과도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 더욱이 남북공조는 이 문제에 관한 중요하다. 부족한 재원을 보조해 주고 남북 학자들이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고구려사는 북한의 전유물이 아니요 한민족의 공동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대응방안

최 광 식

고려대 교수
고려대박물관 관장

중국의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는 2002년 2월부터 ‘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이하 ‘동북공정’ 이라 약함)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이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현실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학제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중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우리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역사왜곡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왜곡 배경

2001년 한국 국회에서 재중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방해하고, 2003년 봄 오히려 집안시 주변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통일 후의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비롯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역사왜곡의 내용

‘동북공정’에서 한국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에 걸쳐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고구려로서, 전문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데 고구려를 고대중국의 일개 지방민족정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고구려의



△ 안악3호무덤 - 서벽 여자
 < 안악3호무덤 - 서벽 남자

역사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여 공식적 견해로 확정하여 버린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제시를 하고 있으나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궁색한 이야기들이다.

고구려가 중국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라는 것, 활동중심에 있어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 고구려가 줄곧 중국역대 중앙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집단이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것 등을 내세워 고구려가 고대중국의 지방민족정권이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

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고려 및 조선족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족원은 중국사서에서도 예맥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부여와 백제와 같은 종족이다. 조공과 책봉을 가지고 종주국과 복속국과의 관계라 주장하지만 이는 동아시아의 고전적인 국제질서상의 외교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을 중앙정권과 지방정권과의 내전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하였으며, 이는 분명히 동아시아의 국제전이었

다. 고구려의 유민이 당나라로 끌려가기도 하였지만 신라나 돌궐로도 갔으나 대부분은 그 고구려 지역에 남아 발해를 건국하는 주체세력과 주민구성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발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와 고려는 계승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고려는 고구려를 부흥한다는 계승의식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한 것이며, 고구려의 도읍 서경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만약 성씨가 같지 않아 계승성이 없다고 한다면 중국의 왕조는 한족과 북방민족이 번갈아가며 중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계승성이 전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동북공정’의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하기 위한 역사왜곡은 일본역사왜곡 교과서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왜곡사건은 검인정 교과서 중의 하나인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왜곡은 중국의 정부기관이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크다. 더구나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발해사와 고조선사까지 왜곡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2,000년밖에 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한강 이남으로 국한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구려사에 대한 중



△ 백암성 남쪽 절벽

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지방(만주)에 대한 역사와 지리 및 민족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동북공정’이 시작된 직접적 계기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이 UNESCO에 신청



△ 고구려연구회 발굴 유물 - 발해성

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고구려의 역사가 마치 중국의 역사인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역사는 남과 북 어느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이므로 남북공조로서 고구려의 역사를 지켜낸다면 남북공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 1월 16-18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권고하기로 하였다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구려유적도 세계문화유산

으로 함께 등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사양론을 더욱 강화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사연구센터의 설립

우리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중장기적 대응방안 특히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학·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구려사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련자료 수집, 중장기적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 양성, 민간전문기관 육성, 중국의 역사왜곡 실태 홍보 등의 제반 임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고구려사연구센터는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부여사 및 발해사를 포함하는 한반도 북방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한반도 북방지역의 영토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기능과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정부나 민간 가운데 특정 부문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단체가 측면 지원하는 학·민·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토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의 역사왜곡과 그 문제점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독자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유적에 나타난 정체성

강 현 속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감정 대응보다 고구려 역사 이해가 우선

우리에게 고구려는 드넓은 만주벌판을 호령 하였던 광개토대왕의 나라로 각인되어 있다. 중국과 북한에 분포하는 광개토왕비와 태왕릉, 장군총을 위시한 거대한 적석총과 벽화분들은 고구려의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었고, 고구려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주도 하에 고구려를 중국 변방에 거주하였던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과 민족의 자긍심인 중국 길림성 집안과 요녕성 환인 일대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토록 할 것이라는 소식은 온 나라를 흔들 어 놓았고, 고구려 찾기에 나서게 되었다.

『삼국사기』에 백제, 신라와 함께 우리의 역사로 기록된 고구려를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겠지만, 우리의 고구려 찾기가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고구려를 바로 알아야 고구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이며, 고구려 사람들은

700여 년 간의 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구려사에 관한 문헌 기록이 적은 상황에서 고구려를 찾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중국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들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무언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적석총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예맥족에서 분화하였고, 압록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주변지역을 병합, 복속하고, 복속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포괄한 다종족 국가이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성(城)들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고구려 영역의 변화도 보여준다.

한편 집안과 평양 일대에 분포하는 적석총이나 벽화분에는 죽음에 대한 고구려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고고학에서 무덤은 전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동일한 무덤은 무덤 축조집단의 동질성을 반영하며, 거대한 무덤은 왕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



△ 시루(구리문화원 제공)

로 해석된다. 때문에 무덤을 축조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먼저 적석총(돌무지무덤)을 들 수 있다. 적석총은 지상에 주검을 안치하고, 돌로 무덤무지를 만든 것으로 기원전 3-2세기경부터 압록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 중원(中原)에서는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목관에 주검을 안치하는 지하식 목관묘(木棺墓)가 유행하였으며, 지하식 목관묘는 한(漢)의 세력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 각지로 전파되어 갔다. 특히 청동기 시대 돌무덤을 사용하였던 중국 동북지방에서

도 기원전 4-3세기를 경과하면서 돌무덤 대신 중원식의 목관묘를 사용하여, 중원의 영향 하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압록강 중하류역에서는 중국 중원의 지하식 목관묘와는 매장방식이 다른 적석총을 사용하여, 중국 동북의 여타 지방과 구별된다.

따라서 적석총은 고구려 고유 모제로 중국과 구별되는 고구려 주민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는 다른 매장방식과 외형의 적석총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축조기술도 세련되어져 한 번 30미터를 넘는 거대한 무덤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아시아의 금자탑으로도 불리는

장군총이나 태왕릉은 4·5세기 고구려 왕의 위용을 웅변하여 준다.

고구려에서 성행한 무덤 - 봉토분

적석총에 이어 고구려에서 성행한 무덤은 봉토분이다. 봉토분은 반지하나 지하에 돌로 주검이 안치될 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 매장을 마감한 무덤으로, 돌을 쌓은 적석총과는 외형상 구별된다.

그러나 주검이 안치될 널방은 합장이 가능한 구조로 4·5세기대 적석총과 같은 구조이다. 또한 널방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는데, 널방의 벽화는 봉토분뿐 아니라 적석총에서도 확인되며, 중국 길림성 집안에는 적석총과 벽화분이 함께 분포하고 있다.

때문에 적석총과 봉토분 외형에서 보이는 차이로 봉토분과 적석총을 축조한 주민이 서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적석총이나 봉토분에서 공통되는 것은 무덤 내부를 장식한 채색벽화이다. 즉 주검이 안치되는 널방에 그림을 그려 장식하여 벽화분이라고도 한다. 벽화분은 중국 한(漢)나라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풍습으로, 그 전통은 수(隋)·당(唐)은 물론 요(遼)·금(金)에서도 유행하였다. 때문에 고구려의 벽화분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실제 고구려에서 처음 축조된 벽화는 널방 천장에는 하늘의 상서로운 세계를 묘사하고, 벽면에는 현실의 여러 세계를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벽화분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무덤 축조에 사용된 재료가 중국은 벽돌인 반면, 고구려에서는 돌이 사용되어 중국 묘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벽화는 선계(仙界)를 지향하는 내용과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며, 그러한 전통은 남북조(南北朝)를 거쳐 요·금대까지 지속되지만, 집안 일대의 고구려 벽화 중에는 중국 벽화분에서 관찰되지 않는 둥근 무늬나 연꽃 도안으로 장식한 것도 있고, 6세기 이후가 되면 현실세계의 묘사는 없어지고 사신(四神)이 벽화의 중심이 되어 중국 벽화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때문에 사신이 중심이 되는 고구려 벽화분은 중국 여타 지방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사신도 벽화분은 고구려 벽화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무덤에 당시 사람들의 사후관이 반영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고구려 벽화분의 변화과정이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고구려와 중국 주민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주민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고구려가 중국의 영향 하에 있던 속국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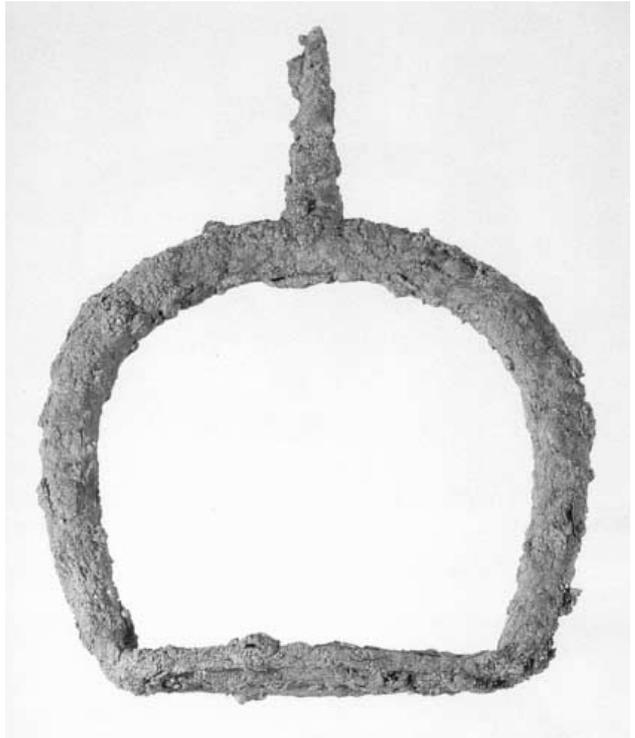
고분벽화는 중국영향권 밖을 반증

한편, 벽화분은 주로 정치·문화의 중심지에 분포하기 때문에 벽화분의 분포를 통해 해당 사회의 정치·문화적 위상을 엿볼 수 있다. 벽화분은 중국 한나라의 경우 왕도인 낙양에 집중되며, 후한대 전국 군현제의 실시에 따라 군현의 중심지에서도 벽화분이 축조된다.

한(漢) 멸망 이후 위(魏)·진대(晉代)를 거치면서 4·5세기대가 되면 벽화분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고구려 영역이 된다. 특히 4·5세대 벽화분의 최대 분포지가 고구려 왕도였



△ 연통(구리문화원 제공)



△ 동자(구리문화원 제공)

던 중국 집안과 북한의 평양이라는 점은 동북 아시아에서 고구려의 정치·문화적 위상을 잘 대변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5세기 강성했던 고구려의 위상은 벽화분뿐 아니라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으로 보았던 광개토왕비문에서도 잘 읽혀진다.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동북아시아에서 웅비하였던 고구려 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인정한 결과이며,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고구려 유적을 근대적인 국가와 영역 개념에 비추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잘못된 것임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극단의 민족주의도 경계해야 된다. 자민족 중심적인 왜곡된 역사관은 고구려사의 복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의 고구려 찾기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구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숙한 역사관만이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객관적 해석과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의 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 디지털화 어디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문화 원형은
세계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력과 경쟁력의 보고(寶庫)이자
잠재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극적인 콘텐츠화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 원형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차별적인 콘텐츠(창작 소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 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이다.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

나 문 성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사업팀장

문화콘텐츠 시대의 도래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를 ‘만인의 미디어’로 정착시켰으며, 이후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디지털기술이 인터넷에 이어 다양한 유무선 미디어와 플랫폼을 생성함에 따라,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이제 ‘디지털’이라는 기술기반의 용어가 더욱 강조될수록, ‘콘텐츠(내용)’로서의 문화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된다. 디지털기술을 통한 장르간 융합의 결과 디지털 미디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 영역이 새로운 핵심산업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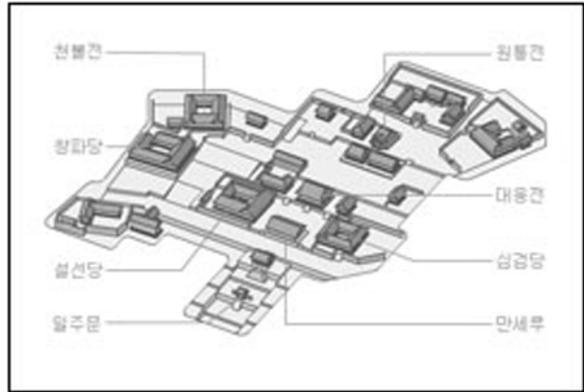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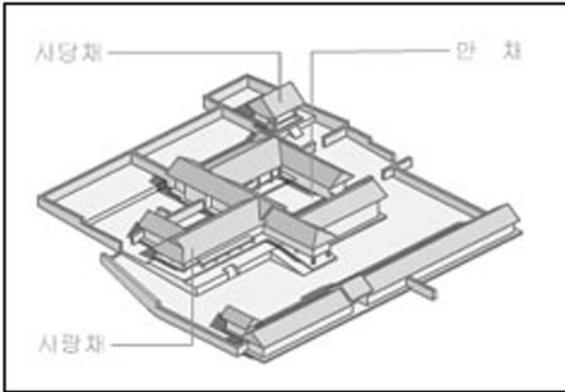
문화콘텐츠란 상상력, 예술성, 가치관, 생활양식 등 정신적·감성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상품(cultural commodit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체화(体化)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문화적 요소가 창의성과 기술을 통해 콘텐츠로 재구성되어 유통되면서 고부가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로 연결된 통신망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의 콘텐츠화가 가능해지면서 세계시장에서 문화생산은 물질생산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경쟁의 원천이 기술력, 자금력, 인력에서 지식, 감성, 무형자산, 창의력, 상상력으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제작, 가공, 유통, 소비과정에 관한 산업,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연관산업을 통칭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형성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예술활동과 유사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성패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문학적 상상력을

문화원형이란 전통문화를 말하는 것이되, 민족 고유성과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보편성을 함축하고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통건축물 안에 있는 수많은 부분들과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같이 꾸며 놓았다.

바탕으로 한 구성력(창의성)이 핵심요소라는 의미이며, 흥미롭고 창의적인 소재 발굴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관건은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산업발전에 활용하는가에 있다. 세계인이 감동하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소재는 바로 자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될 때 더욱 가치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역으로, 전통문화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소재를 접함으로써 성공적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다.

성공적 문화콘텐츠 하나가 가지는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영화 '서편제' 나 최근의 드라마 '다모', '대장금' 과 같은 성공적인 문화상품은 입장료 수입, 프로그램 수출 등 그 자체 매출 외에도 OST음반, DVD, 핸드폰 벨소리·컬러링, 인터넷 아바타, 캐릭터 등의 파생상품 시장을 창출하며, 이러한 부가상품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단순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또는 문화유산의 활용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국가적 이익이다. 전통적인 것을 소재나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은 우리 고유의 것은 낡고 진부하다는 일반의 선입견을 극복하게 하고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므로 전통이나 문화유산의 보존 못지않게 문화콘텐츠산업의 시각에서 기획력 및 제작력(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적절히 문화콘텐츠화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

우리의 경우,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문화원형은 세계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력과 경쟁력의 보고(寶庫)이자 잠재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극적인 콘텐츠화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원형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차별적인 콘텐츠(창작 소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

기획특집 | 우리 문화 디지털화 어디까지

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이다.

문화원형이란 전통문화를 말하는 것이되, 민족 고유성과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보편성을 함축하고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의 범위도 전통문화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지칭한다면, 문화원형은 전통문화의 한 단위 또는 범주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원형콘텐츠는 문화원형을 소재로, 그 내용을 재분석 및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디지털 기술(CT)을 복합·적용시켜 부가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

향후 관련 산업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재로서, 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종 product'가 아닌 '단위 product'로 볼 수 있다. 문화원형콘텐츠는 이미지, 동영상, 소리, 3D 등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성되며, 다양한 매체로의 변환 제작이 가능한 확장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순수문화예술과 인문학을 통해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창작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점차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그 중 순수문화예술과 인문학의 콘텐츠화(창작소재화)를 정면으로 직접 다루고 있는 사업이 바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순수문화예술과 인문학 가운데, 우리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 테마별로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로 제공(서비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의 현황 및 계획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며, 창작소재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을 주된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창작 소재)의 서비스 및 유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까지를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창작 소재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은 2002년 시작되어 2003년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현재 2004년도 사업을 준비중이다. 2002년에는 총 150억원의 국고와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하여 3차례의 공모사업에서 전체 456건의 신청과제 중 40개의 과제를 선정, 지원하였다. 2003년에도 약 70억원의 국고를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전체 177개 신청과제 중 20개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기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과제수행기관에 있어서, 전체 60개 과제 가운데 대학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과제가 약 32%(19개)를 차지하고 있어, 순수예술 및 인문학계의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 주관기관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선정과제의 약 80%(50개)가 서울 소재의 기관(기업)이기는 하나 차수를 거듭할수록 지방 소재 기관(기업)의 선정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내용으로는 개발의 대상이 되는 원천자료와 최종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대략 세 개 분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소재 분야이다. 이 분야는 설화나 역사 등의 문화원형을 비교, 분석, 해설 및 재구성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여러 분야에서 시나리오로 쓰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각 및 청각 소재 분야가 있다. 전통미술, 국악, 건축, 무용, 무예, 공예, 복식 등

과 같이 시각적, 청각적 문화원형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로 복원하고 해설 및 재구성하는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 전국에 있는 사찰, 향교, 서원, 종가 등 전통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대량으로 DB화 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민속자료 소재 분야가 있다. 의식주, 관혼상제, 세시풍속, 민속축제 등 포괄적이면서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화원형을 주로 다루는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콘텐츠 창작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제의 내용을 보면, 대개 세가지 분야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편,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은 창작소재로서 문화원형콘텐츠의 개발과 동시에 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유통환경 및 창작기반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문화원형콘텐츠와 기타 공공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문화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고자 ‘문화콘텐츠닷컴’의 구축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창작소재로서 문화원형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콘텐츠적 측면과 미디어적 측면 모두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요소인 창작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의 가능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창의성은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그 모티프를 얻을 수 있다. 역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은 자국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대중화, 세계화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발전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산업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다.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전통문화와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는 대표적 사업으로, 5천년 유무형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창작소재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보유중인 문화콘텐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 유통체계 정립 및 저작권 위탁관리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창작소재를 개발하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문화 디지털화와 세계화 과제

주영하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오늘날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는 문화콘텐츠는 '새로운 신화 만들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이 지닌 보편적인 상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비록 자료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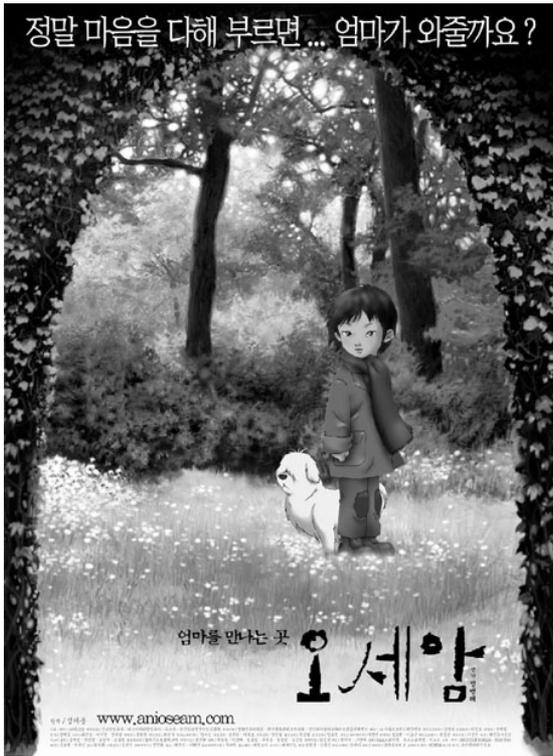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흥행 실패의 교훈

혹시 작년에 나온 한국 애니메이션 '오세암'이란 영화를 본 독자가 계신지 모르겠다. 사실 이 영화는 1984년에 나온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창작과비평사)을 그의 딸 정리태가 재구성한 『엄마를 만나는 곳 오세암』(샘터, 2003)을 극본으로 삼아 한국적인 요소를 통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성공시키려는 노력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왜 이 영화는 관객들,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까?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원작인 동화 『오세암』은 강원도 설악산의 '오세암'에서 전해지는 「관음영험설화(觀音靈驗說話)」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다. 「관음영험설화」는 1643년 관음암(觀音庵)을 증건하여 '오세암'이라고 이름을 붙인 설정(雪淨) 스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설정 스님이 한 겨울에 조카를 관음암에 홀로 두고 시장을 보러 마을로 내려간 후, 눈이 많이 내려 3개월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데도, 봄에 암자로 돌아와 보니 조카가 생존해 있었다. 이에 설정 스님은 관음(觀音)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암자의 이름을 오세암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단지 동화 『오세암』만을 원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를 부모 잃은 남매, 앞을 못 보는 누이, 굶주림, 엄마에 대한 애뜻한 사랑 등을 핵심적인 요소로 설정하여 제작되었다. 즉 한국적 정서인 한(恨)을 전면내세워 흥행에 성공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이 작품은 흥행에 실패했다.

사실 '한'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정서'라는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 배태된 것으로 타자(others)에 의해 조작된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시대적 조류의 변화로 인해 1980년대 동화 『오세암』은 '한'이란 정서를 통해 성공을 했지만, 2003년의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실패를 했다. 오늘날 '한'



이란 한국적 정서는 한국인에게 통하지 않는 문화 코드임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히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이라는 명제만을 믿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만, 현란하고 빠른 속도의 디즈니와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이 영화는 단지 교훈적인 것이었을 뿐이다. 즉 재미가 없었다.

오늘날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는 문화콘텐츠는 '새로운 신화 만들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이 지닌 보편적인 상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비록 자료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가령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와

우리 문화의 디지털화작업은 수많은 종류의 자료를 집적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자료를 서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그림 그리기'를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디지털(digital) 세상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근거로 하는 책과 같은 아날로그(analog)와 달리 자연수와 같이 불연속 속에 위치하는 최소값의 정수배를 근거로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같은 것이 성공하는 이유는 구미인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지녀왔던 전통적인 이야기에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보편성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미사회에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축적해온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문화의 디지털화작업은 수많은 종류의 자료를 집적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자료를 서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그림 그리기'를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디지털(digital) 세상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근거로 하는 책과 같은 아날로그(analog)와 달리 자연수와 같이 불연속 속에 위치하는 최소값의 정수배를 근거로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심의 해체를 통한 개별적인 것의 존재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정확하면서도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정보의 조합이 바로 디지털 세상이다.



△ 〈동국세시기〉 등 과거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화, ‘새로운 그림 그리기’ 바탕해야

이런 면에서 디지털은 단순히 책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과는 다른 인식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책과 다른 인식을 필요로 한다.

가령 앞에서 소개한 관음영험설화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차원적인 설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설화 자체의 이야기와 함께 설화를 둘러싼 각종 실물과 멀티미디어 자료, 이와 관련된 유사 설화의 사례, 강원도 ‘인제’라는 지역정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 등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서로 엉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과 다른 디지털화라고 보기 어렵다.

주지하듯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 정보는 공개성의 확장 정도와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곧장 정보화할 수도 있다. 이것이 디지털의 세계가 지닌 장점이다.

사실 그 동안 국가가 주도하여 해 온 국가문화유산정보서비스(heritage.go.kr), 문화예술정보시스템(culture-arts.go.kr), 그리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kh2.koreanhistory.or.kr)과 같은 한국문화 디지털 작업은 시스템 자체는 디지털이지만 내용은 아날로그적인 경향이 짙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들 디지털정보는 원래 확보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할 뿐이지, 새로운 자료를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근 차세대 전산시스템으로 알려진 ‘순환형 지식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본 구조만 있으면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수시로 자신이 확보한 정보를 일정한 과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진짜 디지털 세상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정보를 담은 멋진 집은 있으나, 그 속에 담길 내용물인 콘텐츠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열중해 왔다. 그래서 집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러나 디지털로 구성된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 혹은 쓸모가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시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책이라는 아날로그 소재를 만들 때는 전문가의 작업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

따라서 디지털시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책이라는 아날로그 소재를 만들 때는 전문가의 작업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다원(多元)이 실천되는 세상이다. 그 동안 우리 문화의 자료를 조사연구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중앙에 예속된 지방을 염두에 두었다.

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다원(多元)이 실천되는 세상이다. 그 동안 우리 문화의 자료를 조사연구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중앙에 예속된 지방을 염두에 두었다.

디지털세상, 지방에서 세계로 직접 연결

하지만 디지털세상은 완도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 보다는 완도에서 곧장 뉴욕이나 파리로 연결된다. 디지털세상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방이 모두 열려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 남의 문화의 우리화를 한순간에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의 무서운 힘으로 곧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았다. 그래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울릉도의 각종 문화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디지털세상에 올리면 세계의 모든 인터넷 접속자가 흥미만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볼 수 있다. 가능하면 언어의 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축된 우리 문화는 한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영상기록을 통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새로운 조사방법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필

요하다. 가능하면 시각적 자료와 문헌자료, 그리고 음성자료의 조합은 문화현상이 지닌 다원성을 담아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기술의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전에 비해 더욱 열심히 주위에 널려 있는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인제의 오세암 인근에 있는 지역 연구자가 관음영험설화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면,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새로운 원천 자료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불교의 세계적인 유행은 이 애니메이션을 성공시키는 데 지름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세계화는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콘텐츠는 지방화이다. 지방화의 특성은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엄밀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을 디지털화하면, 문화상품으로 만들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만난다.

따라서 지역문화에 대한 디지털적인 사유방식을 근거로 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는 디지털시대에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서 승부를 매기는 '진검'(眞劍)이다.

현재진행중 우리 문화 디지털 작업

편집부

콘텐츠 리소스 센터 설립 계획

우리 문화 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문화재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 그 동안 축적해온 아날로그 자료와 각종 DB들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소재 개발이 시급했으나 체계적인 디지털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화관광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역사, 전통, 풍물, 생활, 전승, 예술, 지리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원형 자료를 집대성, 한국콘텐츠 리소스 센터(KCRC : 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보화촉진기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5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KCRC는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관련기술(CT : Culture Technology)을 활용, 다양한 문화원형 자료를 테마별로 디지털화, 관련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콘텐츠뱅크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천년간 축적해온 우리 문화 원형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 신기술로 테마별 콘텐츠화 함으로써 애니메이션, 게임,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창작소재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품질의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핵심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작년 제1차 '우리 문화 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사업 자유공모'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은 디지털 콘텐츠화되었을 때 파급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도 한 것이다.



△ 멀티미디어적 요소에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미있고 독특한 소스를 종합적으로 편집, 구성했다.

파급효과 크고 시급한 과제 중심 선정

선정된 프로젝트는 ‘근대적 유통경제의 원형을 찾아서’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연구소), ‘한국 천문,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디지털 문화콘텐츠개발’ (시퀀스 엔터테인먼트), ‘한국무예의 원형 및 무과시험 복원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영진전문대학), ‘게임제작을 위한 문화원형 감로탕의 디지털가공’ (한서대 애니메이션영상연구센터), ‘국악 선율의 원형을 이용한 멀티서라운드 주제곡 및 배경음악 개발’ (세인트 뮤직), ‘한국인의 생명-김치문화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람과정보), ‘조선시대 상인활동에 나타난 조선상업사 문화원형의 시각콘텐츠 구현’ (시스월), ‘조선시대 조리서에 나타난 식문화원형 콘텐츠 개발(토스 코리아), ‘악학궤범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공연문화콘텐츠 개발’ (프라스 프로덕션), ‘한국미술에 나타난 길상 이미지 콘텐츠 개발’ (골든벨 애니메이션) 등 11개 프로젝트에 달한다.

이 사업에 공모한 관련기업 외 개별 IT업계에서도 우리 문화 원형에 대한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코리아 루트의 ‘한국의 소리은행 개발’은 현대의 전자음으로 재생 불가능한 우리 고유의 모든 소리를 소리은행으로 사이버상에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3,500편의 민속 현장음 중심의 소리 자료와 추가로 발굴, 수집된 디지털 동영상 자료 600편, 그리고 1,500편의 디지털 소리 자료를 합쳐 총 5,600편 규모이다.

콘텐츠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검증을 받았고, 현장에서 현장음을 대상으로 제작했다. 또 손·망실을 위한

대체방안으로 발굴 및 수집되는 원천 데이터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반영구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복원, 제작하여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동물 및 기타 자연물과 관련된 소리들은 해당 전문가와 분야별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했다.

우리 소리와 복식 등을 콘텐츠로 공급

개발 콘텐츠는 크게 듣는 소리와 보는 소리로 나뉘어져 각각 구전민요, 구전설화, 전통문화, 근래 소리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듣는 소리는 음향파일, 이미지, 텍스트를 한 공간에 디자인하여 각각의 개별 콘텐츠를 하나의 비주얼한 볼거리로 재편집했다. 멀티미디어적 요소에 다양한 상황에서 발행하는 재미있고 독특한 소소를 종합적으로 편집한 것이 눈에 띈다.

보는 소리 또한 영상파일과 텍스트를 함께 디자인하여 영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고화질, 고음질로 개별 소리 콘텐츠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했다.

드림 한스가 추진하는 ‘고려시대 전통복식 디지털복원’ 과제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고려시대 복식 자료들을 총집약해 고려시대 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형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알기 쉽고, 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 가능하도록 3D로 개발하고 있다.

어느 시대보다 화려했던 고려 복식을 재현, 이를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며 아름다운 우리 전통복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개발의 목적이다.

드림 한스는 총 82벌의 의상을 3D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크게 △왕 △궁중의 근시, 의위 △고려후기 사대부 △왕비 △궁정 시녀 △귀족

기획특집 | 우리 문화 디지털화 어디까지

사녀 △귀족 아동 △평서민 및 무악인의 8개 신
분으로 구분했고, 관복, 예복, 상복, 평상복 등
의 상황에 맞는 의복을 재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려를 배경으로 한 문화콘텐
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무인시대 왕건
과 같은 드라마의 방송자료로 게임, 애니메이
션 제작 등에 유용하다. 특히 3D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게임과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경우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등 수요가 많을 것으
로 전망된다.

하우스 세이버의 '한국 전통건축과 그 안에
있는 장소들의 특성에 관한 콘텐츠 개발'은 현
존하는 전통건축물 중 30개를 선별, 건축물 안
에 있는 장소들의 특성을 끄집어내 이를 인터
넷 환경에 맞게 재가공하는 프로젝트이다.

선별된 30개의 건축물은 가옥 10개, 서원 10
개, 사찰 10개로 각각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내용이 구성될 예정이다.

전통건축물과 옛놀이도 분야별 DB화

이 콘텐츠 개발은 전통건축물 안에 있는 장
소들에 대한 특성을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
건축물 안에 있는 수많은 장소들과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소재로 하면 시나리
오가 더욱 다양해지고 구체화될 수 있는 특징
이 있다. 뿐만 아니라 풍습을 포함한 전통건축
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까지 공급해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건축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
했다.

한편 아뜰즈에서는 100년, 200년 전에 살았
던 우리 조상들이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 조사,
원형을 개발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문화원

형 디지털 콘텐츠는 우리 전통놀이를 발굴하고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통
놀이 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다.

주로 1950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즐겼던 놀이
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과거 문헌에
내용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원천소스를 제공한 놀이연구회 측은 지난 1983
년부터 회보를 계속 발간하면서 잊혀진 우리
놀이들을 정리하고 되살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 발굴했던 전통놀이 100여종에 대해 문헌,
풍속화, 민화, 해외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전통
놀이를 확인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텍스트,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현해 문화콘텐
츠의 창작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
획이다.

특히 각 놀이에 대한 유래, 놀이방법, 놀이도
구 제작법, 교육효과 등을 텍스트 뿐 아니라 일
러스트, 애니메이션으로 알기 쉽게 구성해, 문
화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한국예술정보는 '애니메이션 요소 및 배
경을 위한 전통건축물 구성요소 라이브러리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각지의
사찰, 탑 및 구성요소 등을 시대별, 용도별로
촬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라이브러리
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사진작가, 전통건축 연
구가 등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국의 1,400여개
건물과 사적, 유적을 촬영했다. 전국 각지에 산
재해 있는 사찰, 향교, 서원, 종가 등 전통 문화
재로서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두 1
만1,000장의 이미지를 DB로 만들었다. 고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시대별로 중요한 문화
재를 선정했고, 이를 다시 건축물, 건축 구성요
소 등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건축물 자료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배경, 소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원화 도안작업시에는 기초자료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경우 배경의 소스로 유용하다. 또 전통을 소재로 한 게임에서는 건물, 배경 등을 디자인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전통문화, 전통건축을 소개하는 잡지 및 콘텐츠의 보조자료로도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관광정보로 구축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세한 관광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폭넓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주)국악중심에서는 ‘우리 음악의 원형 산조(散調) 이야기’를 문화원형사업 과제를 개발하고 있다. 국악의 한 장르인 산조를 기본으로 숨겨진 설화나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전통악기, 명인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 소재로 재구성한다.

(주)국악중심이 직접 취재, 수집해온 자료를 토대로 콘텐츠를 구성한다. 이 중에서도 거문고, 가야금, 아쟁, 대금, 해금, 피리를 시나리오화해 소개하고, 각각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상세한 데이터 속에는 악기, 악보, 설화와 더불어 그림, 문학, 문헌, 명인, 고사성어 등이 수록된다. 이외에도 각 산조인, 다큐멘터리, 공연실황 등의 동영상과 음원, 악기와 산조명인의 사진도 수록할 계획이다.

산조를 매개로 산조가락과 악기, 명인에 관련된 유래, 설화, 장인, 계보, 인간문화재, 다큐멘터리는 시나리오 소재인 셈이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 모두 200여종 이상이 기록된다.

이외에도 다할미디어의 ‘한민족 전투원형 콘텐츠 개발’, 히스토리피아의 ‘한국 전통무기 및



△ 관복, 예복, 상복, 평상복 등 고려 복식을 재현하고 있다.



△ 설화나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전통 악기, 명인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 소재로 재구성,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몬스터 원천소스 개발’, 동아시테크의 ‘한국신화 원형의 개발’, 포스트미디어가 개발하는 ‘화성의궤 이야기’ 등 많은 분야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게임,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시장이 제조업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며,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 5,000여년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문화 원형을 디지털화시킨 문화콘텐츠 개발이야말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강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여진다.

옛사람의 체취 그림으로 읽는다

오 주 석 간송미술관 연구위원



그림 보기와 읽기

옛사람들은 그림 감상을 일러 간화(看畵), 즉 ‘그림을 본다’는 말보다 독화(讀畵), 곧 ‘그림을 읽는다’는 말 쓰기를 더 좋아하였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받아 본 제자 이상적이 스승께 올리는 편지에서 “세한도 한 폭을 엮드려 ‘읽음’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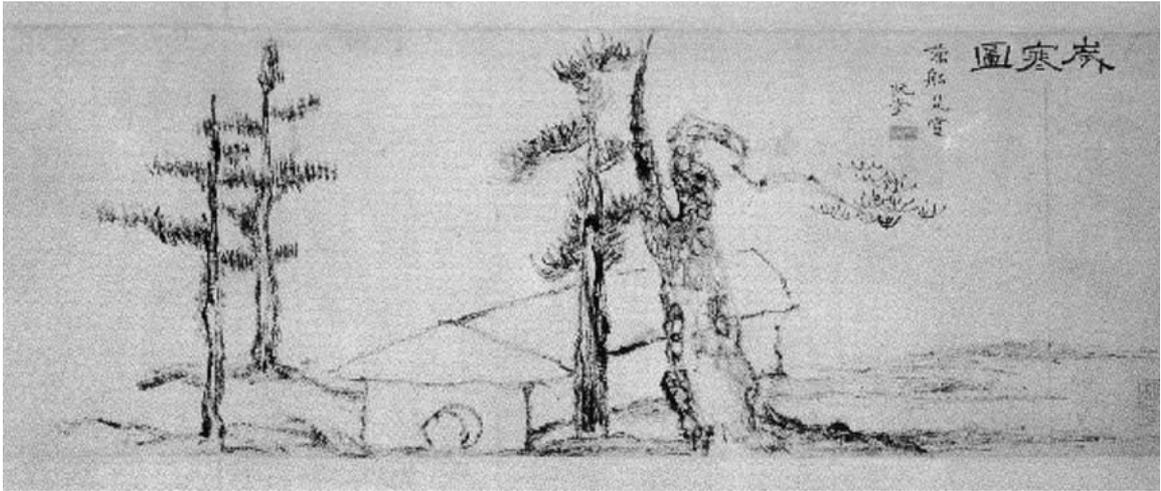
깨닫지 못하였습니다.(歲寒圖一幀 伏而讀之 不覺涕淚交迸)”라고 쓴 것도 그 일례다.

그림을 ‘읽는’ 것과 ‘보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본다’는 것은 곁에 드러난 조형미를 감상한다는 뜻이 강한 데 비하여, 읽는다는 말은 동양의 오랜 서화일률(書畵一律)의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글씨와 그림이 한가락이므로 보는 방법도 한가지로 ‘읽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림에서 읽히는 내용 또한 형상보다는 그런 이의 마음이 주가 되니 문인화(文人畵)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예(父)자 획순으로 읽는 옛그림

옛 그림 가운데서도 화첩(畵帖)은 형태가 서양화와 비슷하다. 그런데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화면을 세로 접어 책처럼 간수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림 한복판에 세로 접힌 금이 생기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런 자국은 현대인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훌륭한 작품의 한 구간을 왜 꺾고 접어서 갈무리하였을까? 옛 그림은 ‘보기’ 위한 것이기보다 ‘읽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서양식 가로쓰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읽는다. 이때 시선(視線)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진행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악을 기록한 오선지(五線紙) 악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고 읽는다. 그



△ 김정희 <세한도>

러므로 그림 보는 사람의 잠재적 시선은 먼저 좌상(左上)으로 갔다가 대각선을 따라 우하(右下)로 흘러내린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시선이 닿는 곳은 왼편 상단이다. 그 다음은 알파벳 X자를 쓰듯이 왼쪽 획의 흐름을 따라서 보고 이어서 오른 획의 방향을 따라 보는 것이다.

옛 그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눈길을 옮겨 감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우상(右上)에 제목을 적고 좌하(左下)에 작가의 관지(款識)를 넣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옛 그림을 서양 사람 습관에 따라 X자 모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서양 그림은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 옛 그림을 그렇게 보는 것은, X자에 '아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릇된' 감상법이다. 우리 그림은 모름지기 한자 '폴 벨 예(父)'자의 획순처럼, 먼저 빼침(약掠)을 따라서 보고, 이어 파임(책磔)을 좇아가듯이 감상해야 한다. 예(父)자는 '다스린다', '조리가 있다'는 뜻으로도 새겨진다. 《상서(尙書)》〈홍범(洪範)〉편에는 '종작에



△ 김홍도 <씨름>의 여백의 구조

(從作父)', 즉 '이치를 따르니 조리가 있다'는 글귀가 있다. 이 말이 바로 우리 옛 그림을 보는 '옳은' 방법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면 편리할 것이다.

우리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애초 옛 그림의 표구 형식부터가 족자(簇子)나 병풍차(屏風次)처럼 내리달이가 많은 이유는 모두 글쓰는 방식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어느 글을 보니 사람의 눈이 가로고 길게 생겼으므로 서양식 가로쓰기가 전통적인 세로쓰기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 필자는 글 읽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다. 옛글과 옛 그림은 원래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이며 보는 것으로, 그것은 풍류도 있어 보이려니와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오히려 좌우로 눈동자를 굴리거나 고개를 도리질하는 것이 더 채신없어 보이지 않겠는가?

연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9m에 이르는 이인문(李寅文)의 걸작 두루마리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 전체를 다 펴보인 적이 있었다. 이때 학생들이 우루루 몰려들어 구경을 하는데 한결같이 왼쪽 끝을 향하는 것이었다. 작품을 꿈꾸니부터 거슬러가며 보는 격이라 한편으로 어이가 없으면서 한편으로 딱했다. 그러나 잘못은 어린 학생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글쓴이가 작품 위에 써서 걸어 놓았던 해설판이 가로쓰기였기 때문이다.

동서양에 따른 감상 요령의 차이는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에 걸려 있는 현판은 조선왕조 숙종(肅宗) 임금이 쓴 글씨다. 그런데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것을 요즘 사람들 읽기 좋으라고 좌에서 우로 순서를 바꾸었다. 때문에 글자 획간(劃間)의 균형이 무너져 버려 어색하기 짝이 없다. 또 우리나라 고서화(古書畵) 전시 도록을 보면 대부분 표지가 왼편인 서양식 좌철책(左綴冊)이다. 모두 꿈꾸니부터 작품을 보게끔 한 것이다.

옛 그림 전시장엘 가보아도 사정은 같다. 많은 경우 입구에서 왼편으로 돌게끔 동선(動線)을 설정해서 작품을 거슬러 보게 한다. 글쓴이처럼 굳이 오른편부터 보겠다고 고집을 피다가는 동선을 따르는 많은 서양식 관람자들과 머리를 부딪히게 된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교양 없고 무지한 사람이 되어 눈흘김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다. 하지만 전시된 작품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모처럼 TV에서 옛 그림을 방영하고 해설하는 걸 보면 카메라 앵글은 그림의 세부(細部)를 영락없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훑어 간다. 이 경우 작품 감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작품을 ‘읽는’ 동서양의 방식 차이는 아주 작은 듯하나,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이처럼 예상 밖으로 엄청나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옛그림은 애초 가로쓰기식으로 보면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 그것은 옛 화가들에게 세로로 읽고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보는 이도 당연히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 쪽으로 감상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구도(構圖)를 잡고 세부(細部)를 조정하고 또 필획(筆劃)의 강약까지도 조절했기 때문이다.

好之者 不如樂之者

감상 요령의 첫째는 좋은 작품을 무조건 많이, 자주 보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살아 있는 생명체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접근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감상자 개개인의 체험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서로 많이 다르다.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경험한 삶의 내용이 서로 다른 데서 온다.



△ 김홍도의 <포의풍류도>

유명한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인 음악은 실제로 감상하기 어려운 난곡(難曲)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또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그널 음악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풀고 친근을 느끼면 결국은 좋아하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는 오랜 진리이다.

옛 그림을 잘 감상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좋은 작품을 무조건 많이, 자주 보는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것은 작품을 자기만의 눈으로 소화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 주기 때문이다.

둘째, 작품 내용을 의식하면서 자세히 뜯어 본다. 세상을 살다보면 ‘보았지만 못 보았고 들었지만 못 들었다’는 정황이 있음을 종종 경험한다. 한문의 ‘시이불견(視而不見) 청이불문

(聽而不聞)이 그 말이고, 영어에도 see와 look at, hear와 listen to라는 전혀 다른 표현이 있다.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 감탄해 마지않은 작품도 건성으로 그저 지나쳐 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마련이다. 음악에 골똥히 집중해서 귀기울이는 사람은 낮은 베이스 음 하나가 바뀌는 순간에도 깊은 감동을 받지만 엉뚱한 데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음악이 자동차 소음처럼 시끄럽게만 느껴질 것이다.

손, 눈과 마음으로 베껴내는 작업

작품 내용을 의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품을 내 손으로 직접, 있는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이다. 손은 ‘신체 바깥으로 드러난 뇌’라는 말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임모(臨摹), 즉 베끼는(copy)는 행위가 화가의 가장 큰 스승이다. 그 체험은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이다. 그

우리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러나 임모할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림은 손은 물론이고, 눈과 마음으로도 베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만 감으면 그 모습이 절로 선하게 떠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즉 떠오르는 것은 대상을 향한 넘쳐나는 마음일 뿐이고, 그 모습 자체를 재현하는 능력이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윤복(申潤福)의 <미인도>를 보고서, “계란형 얼굴에 이마가 시원하고 걸 고운가는 눈썹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을 고르게 덮었다. 죽 곧은 콧등은 단정하고 콧방울도 반듯하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인중은 약간 긴 편이고 입은 코보다도 작는데 입술가가 약간 들려 보일 듯 말 듯한 표정이 살포시 담겨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미인도>를 떠올릴 수 있다.

셋째, 오래 두고 보면서 작품의 뒹뒹이를 생각한다. 오래 보아서 좋은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다. 여기서 오래라는 말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일, 몇 달 또는 몇 년에서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것일 수도 있다. 훌륭한 그림은 진정 훌륭한 인간과 같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예술품을 영원하게 하는가? 그것은 끝까지 풀리지 않는 신비일는지 모른다. 그림은 한눈에 전체가 다 보인다. 그림의 좋고 나쁨은 한순간에 파악된다. 그림은 정지된 영상이기 때문에 음악과는 달리 수시로 전체와 다양한 세부를 번갈아가면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그림 감상은 어찌 보면 음악 감상보다 훨씬 쉽고 또 어찌 보면 훨씬 어렵다. 쉬운 이유는

음악과는 달리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이고, 어려운 이유는 음악처럼 시간을 따라 펼쳐지는 세부를 자동적으로 음미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악은 매순간 주의 깊게 듣고만 있으면 저절로 훌륭하게 감상된다. 그림은 그 완벽한 조화, 그리고 작품이 표상하는 영원함은 전체로서 화폭 속에 늘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면 주제, 소재, 상징, 구도, 필치, 색채, 통일성, 다양성, 운율감, 재질감, 원근감 등등 다양한 요소로 구축되어 있다.

사실 복잡 미묘한 예술 세계의 깊이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그림이건 음악이건 건축이건 또는 무용의 한 장면이건 그것은 그것 자체일 뿐 언어나 다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그러나 그림은 정지된 공간 속에서 앞서 말한 수많은 갈래의 여러 측면으로 각각 관찰되고 음미된다. 뿐만 아니라 주제는 구도를 결정하고, 구도는 필치를 결정하고, 필치는 운율감을 결정하는 것처럼 각각의 측면은 또 다른 측면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주 작은 부분조차 전체를 반영한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한 세포 속에 전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정보가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비겨볼 만한 점이 있다. 여기에 그림이 갖는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다.

오래 두고 보는 감상의 즐거움

그림을 보는 방법은 사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내용에 비추어서, 자신의 교양과 안목과 맞추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보았던 작품 속에서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감상자 자신이 깜짝 놀라는 전혀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일도 적지

않다. 보는 이의 삶과 교양, 안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단기적으로도 볼때마다 달라진 감상자의 기분이 작품 보는 눈을 새로운 각도로 조정하기도 한다. 새롭게 느껴지는 작품의 경우라면 신선한 맛을 즐기면 그만이다. 반면 어떤 작품들은 늘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그 변함 없음이 좋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작품 속의 어떤 면모가 이러한 만족감을 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 알기보다 감상자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기만의 즐거운 몫이다. '오래 보면서 작품의 됴됨이를 이모저모 생각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 자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옛 그림 속에서 지나간 역사를 볼 수 있다. 옛 그림 속에는 다치지 않은 옛 그대로의 자연이 있고, 그것을 보는 옛사람들의 눈길이 스며 있고, 옛사람들의 어진 마음 자리가 담겨 있으니, 한마디로 말해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재질이 종이이거나 비단이거나 간에 옛 그림은 하나의 물질 자체로서 아련하게 배어 있는 지난 세월의 향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을 아꼈던 많은 인물들의 고상한 입김과 정성스런 손때가 묻어 있다. 어떠한 물건도 저절로 수백 년이나 보관되는 일은 없다. 또 한 폭의 작은 그림에는 옛 문학, 옛 건축, 옛 음악, 옛 풍속, 옛 의상, 옛 글씨 등 여러 분야가 고루 관여하고 있으니 거기에 실려 있는 것들을 모두 살펴보면 참으로 끝이 없다. 여기에 회화 예술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깊이가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중국에는 작품을 그린 화가라는 한 인격체의 독특한 빛깔로 물들여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그림에서 한 분의 그리운 옛 조상을 만날 수 있다.



△ 신윤복의 <미인도>



칼날보다 푸른 丹心서리어라

한국 최초의 대통령상 전통도검 장인 홍석현

칼의 세계로 인도한 사인검과 환두대도

젊음과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부터 한발 벗어난 경기도 고양시 고봉산 야트막한 산자락에는 우리네 먹거리를 품어기르는 넉넉한 토양이 있고 홍석현씨의 허름한 도검 작업실이 있다.

일주 홍석현은 이 날도 칼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어보였다. 작업실 내부는 다양한 도검과 칼 제작에 쓰이는 각종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는 백제 무령왕의 환두대도 재현 작품의 일부를 만들고 있었다. 손잡이 부분을 장식할 은사를 강화하기 위해 불로 달구는 작업이었다. 큰 칼에 비하면 소소한 부분이지만 불꽃을 닮은 그의 눈빛은 작은 것 하나에도 집중을 다 한다는 마음으로 숨소리조차 잡히지 않는다.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사인검(四寅劍)을 그의 작업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인검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60년에 한 자루 제작한다는 벽사용 검으로서 양의 기운이 충만한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 호랑이를 뜻하는 인(寅)자가 네 번 겹치는 시에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검은 베고 찌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액을 물리치는 부적용이었다고 전해진다. 해서 그런지 손잡이와 칼날의 장식과 문양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빼어나다. 홍석현을 전통 칼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장본인도 이 영검이다.

“처음 사인검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에 매

지난해 개최된 제2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대상은 전통도검을 재현하는데 20여년간 심혈을 쏟아온 홍석현씨에게로 돌아갔다. 이상을 주관하는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측에 따르면 공예 분야 가운데 금속공예가 대상을 수상하기는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수상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전통도검을 연구하고 재현을 고수해온 당사자들에게 사기 진작의 계기가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

기계의 힘으로 칼의 대량 생산도 가능한 이때에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는 홍석현씨(51). 얼음이 토지를 감싸고 있는 한겨울 어느 날 아직도 배울 것이 더 많다 하며 턱을 낮추는 칼의 장인을 만나 보았다.

로되었습니다. 손잡이의 현란한 장식과 칼날에 상감기법으로 새겨진 별자리 28수 등 여러 문양은 조형적 미의 가치가 충분해 보였지요. 사인검을 재현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지만 전통의 맥이 끊겨 전수해줄 만한 스승도 찾기 어려웠고 전통적 제작기술을 설명하는 문헌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전통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현실은 이미 전통과의 사이에 강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나마 사인검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박물관 통우리 너머에 누워 있는 사인검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도검으로 꼽는 것은 1,500여년 전 백제 무령왕의 환두대도이다. 한반도 전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환두대도는 둥근 머리 모양의 큰 칼이라는 뜻으로 손잡이 위의 둥근 고리 안에는 삼엽, 용, 봉황 등이 조각되어 있다. 고대 왕과 그에 버금가는 세력가들의 소장품이었다.

그는 환두대도를 비롯한 전통도검은 종합예술품이라고 강조한다.

“칼날의 금속공예, 손잡이와 칼집의 목공예, 칼집을 장식하는 가죽공예, 그리고 조각, 주조, 단조 등이 하나로 결집된 공예기술의 결정체이지요.”

지금껏 수 차례 환두대도를 재현해온 그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연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허나 아쉽게도 그에게 방법을 전수해줄 스승은 없다. 박물관의 복원된 유물이 그를 과거 장인의 세계로 넘나들게 하고 그의 예술적 솜씨와 상상력이 21세기에 고대의 도검을 재현케 하고 있다.



△ 작품을 최종점검하는 장인 홍석현씨



△ 대통령상을 받은 환두대도의 손잡이 부분

한때는 나전칠기 전문가로

나무와 쇠와 불과 물로 단련된 그의 손은 거북 등처럼 딱딱하다. 그런 그도 장인의 인내를 모르던 야들야들한 시절이 있었을 터. 그가 처음 전통공예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1969년. 그의 나이 14세 되던 해이다. 그의 이모부가 나전칠기 제작소를 소개해 준 것이 지금의 그가 있게 된 계기다. 당시 굽는 것을 면하기 위해 제작소에 다니기 시작해

전통문화의 숨결

화병, 담배함, 문갑과 같은 소품 제작 기술을 익혔고 그 후 전농동 등지로 작업실을 옮겨 다녔으며 종로에서 상패, 명패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나전칠기 작업으로 16년이 흘렀다.

그러던 중 그가 전통도검을 접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장성에게 선물하는 '삼정도' 제작에 참여할 때부터. 칼 손잡이 조각 장식을 맡은 것을 계기로 쇠 다루는 법과 전통도검 제작 전 과정을 차차 익히게 되었다. 그가 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의 고향 천안에서 농사짓는 부모는 별걸 다 한다며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여성의 남편이자 3년의 아버지인 현재의 그는 다행히도 자신의 업에 대한 가족의 이해가 있어 마음이 편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전통도검 제작 공동체 세울 터

상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국가의 지원 부재에, 더더군다나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전통 재현 및 전승의 작업은 평탄한 길은 결코 아니다. 그런 와중에 받은 상은 그의 코를 고삐로 꿰어 앞으로 끌고 가려 한다. 그가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제자 양성이다.

“요즘 누가 돈 안 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나요. 1,2년 못 견디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돈벌 궁리하면 이 일은 못할 뿐더러 오랜 시간 단련을 해야 하니 못 견디고 말고요. 제대로 된 칼을 만들려면 30년은 견뎌야 되는데.”

짧막한 기간 그의 밑에 있다가 제 발로 나가는 제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 실력으로 나가면 지난 시간만 버리는 셈이 되어 버린다. 2년간 그의 밑에 있다가 나간 한 제자를 떠올렸다. 제자가 그만두었을 때 거의 다된 작품을 버

려야 하는 것처럼 안타깝기 그지 없었으나 제자가 다른 도검 제작소에 있는 것을 목도했을 때에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석현은 후진 양성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노동 수요가 적은 장애인들을 제자로 삼아 기술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폐교를 활용해 전통도검 제작 학교 및 전시장으로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20여명의 전수자와 관련 지원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꾸리고 싶습니다.”

명장이 되기까지

그의 제자들이 도검제작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담념이를 하는 것처럼 홍석현 자신 또한 방황의 시절을 겪었다. 한때 운전기사, 막노동꾼으로 지내며 칼과 거리를 두려웠지만 중국에 그의 육과 혼을 부르는 것이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홍석현은 하나로 질끈 묶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었다.

“3년 전부터 기르고 있지요. 사실 기르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명장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자르지 않겠다고.”

명장이 되기까지는 결코 자르지 않겠다고, 그리고 달성한 이후에는 머리털 한 올 남지 않게 삭발을 하겠다고 한다. 삭발은 무엇인가. 그의 다정한 연인으로 마지않는 청청한 칼날. 역수같이 내리쳐지는 단조와 물불에 단련되어 세상의 티끌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한 그 연인을 그도 닦고 싶은 게다. 칼을 만들기 위해 깨끗한 정신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그는 차라리 연인과 합일이 되고 싶은 것이다.

(박지혜 기자)

지역전통음식 상품화와 국제화전략



이 종 수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역문화가 문화관광(cultural sightseeing)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볼거리(spectacles)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음식, 음악, 건축물, 조경, 민속공예, 유적, 설화, 춤, 습속 등의 문화소재가 그 대상이다.



△ 한국 전통 궁중음식(수라상 대원반)

21세기는 지역문화 국제화의 시대

21세기는 문화체험 시대이다. 토플러(A. Toffler)는 근래 관광의 매력은 체험에 있다고 설파하고, 이와 같은 관광체험인식의 확산에 따라 관광산업의 요체로서 체험산업(experiential industry), 즉 경험을 파는 신종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환언하면 관광의 묘미는 이문화적 체험(cross cultural

experience)이며, 문화관광을 통한 문화비교와 올바른 문화적 이해를 통하여 국제적 문화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국가나 지역들로 하여금 개성화된 현대인, 세계인들의 구미에 맞는 문화체험, 특별체험관광 등의 프로그램, 농촌문화 마을조성, 야간 관광프로그램 등으로 지역문화를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5일제 실시에 따라 원거리여행, 가족여

전통음식으로 지역문화 살리자

행 활성화 및 보편화가 기대되며, 수도권에서만 섬이나 해양관광과 같은 이벤트형 여행과 가족형 체험관광, 농촌체험관광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고유문화 확립수단으로서의 먹거리, 볼거리를 연계한 지역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알리기와 지역 전통문화의 특성화가 시급해졌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지역마다 특색있는 향토음식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역전통음식을 통한 지역전파와 개발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추억은 특정지역의 볼거리와 먹거리에서 편안한 안식과 추억거리를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관광과 가족동반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주야간 프로그램개발의 차별화 및 숙박시설, 먹거리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최근 지방화현상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문화를 원료로 한 관광상품의 소비와 향유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문화관광의 생명은 독특한 테마이다. 곧 지역의 장소성과 연계된 문화적 질료를 이미지, 상징, 양식, 색깔, 소리, 맛 등으로 재현되어야 하며, 그 향유 방식(관광)은 문화의 원형 가치를 손상시키면 안된다. 또 지역문화가 문화관광(cultural sightseeing)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볼거리(spectacles)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음식, 음악, 건축물, 조경, 민속공예, 유적, 설화, 춤, 습속 등의 문화소재가 그 대상이다.

지역음식문화의 상품화는 지역음식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사성, 자원성, 문화성, 지역

성을 이념으로 하여 음식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음식문화의 상품화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역전통음식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해당 지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통향토음식은 불특정다수에 의해 지역 특유의 식습관, 재료, 조리 비법 등이 함축되어 있다. 전통향토음식은 특정지방에서만 생산되는 특산재료를 사용, 그 지역과 기후에 적합한 조리법에 의해 발전된 음식이며, 예부터 그 지방행사와 관련되어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음식이다.

지역 전통음식의 상품화와 국제화 방향

이와 같은 음식은 언어와도 같아 각 민족과 각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특히 자동차의 발달로 향토음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향토음식은 복제가 어려운 토산품으로 개성화, 다양화, 차별화를 선호하는 현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지역의 소재로 음식에 특징을 달고, 그 지방의 분위기 연출, 계절감, 요리 자체 정보를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지역성이 가미된 향토음식을 맛보는 것은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의 이해, 친밀감의 생성 등 귀중한 체험이 된다. 따라서 문화체험과 특별체험관광 프로그램 다양화와 문화관광과 먹거리를 직접체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대량생산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고유한 역사와 지역문화, 자연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특정문화의 소비를 통해 삶을 반추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행태가 중시되

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2003년 7월 24일)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되돌아가는 구미주인 228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음식 및 음식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49%), 비빔밥(39.5%), 김치(34.2%) 갈비(32.5%), 삼계탕(24.6%)순이었다. 한국음식이 우수한 점은 맛(55.9%), 다양성(35.7%), 건강(35.2%)으로 나타났으며, 나쁜점은 지나치게 자극적(31.2%), 모양이 나쁘다(23.9%) 등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음식문화 유산의 발전 과제

따라서 앞으로의 전통향토음식의 계승전략 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본다.

첫째, 전통음식의 전국적 특성화를 통한 개발등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한국의 대표음식 52개를 선정하고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비한 식단도 개발하여 중국인 전문음식점에 배포한 바 있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토속음식을 특화한 남도음식특구인 광주시 동구가 있으며, 전남 ‘세계음식문화대잔치’ 등은 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봉계 한우불고비는 이 지역 한우를 가공해 왕소금을 뿌려 간을 맞춘 뒤 참숯불로 굽기 때문에 향이 고기에 배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일품이다. 또 전북 전주는 ‘콩나물국밥’이 경쟁력있는 음식문화상품으로 각광받는



△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 갈비 구이

다. 일본광고회사 ‘텐쓰시’는 전주의 경쟁력을 음식문화라고 평가하고, 담백하고 시원한 콩나물국밥을 전주지역 ‘맛 투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강원도는 전통향토음식을 외국인 기호에 맞게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도내 주요관광지 주변 향토음식점을 선정, 외국인전용 시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음식 특화가 자주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



△ 반찬의 가짓수 많기로 유명한 한식이지만 우리의 전통음식이다.

광지는 인사동, 고궁, 남산, 휴전선 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고궁의 궁중음식, 남산골의 전통 주류, 인사동의 해장국, 휴전선의 생태관광과 자연식, 한강 유람선의 뱃사공 음식과 유람선식 개발 등을 차별화는 방안을 강구한다.

홍콩과 프랑스의 관광은 쇼핑과 음식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서울지역 전통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한 직접 체험관광 패키지화 전략 방안으로 서울지역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궁중음식 등을 중화권, 일본 및 구미지역 관광객의 미각에 맞게 선정, 개발하고 '서울의 맛 지도' 등을 통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느 지역 하면 특정 볼거리와 먹거리로 연상되고, 그것을 먹고 보면서 즐기는 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한다면 전통속의 음식자원을 지역문화관광과 연계하고, 그 효과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음식과 볼거리를 통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또 도시의 문화거리, 공연장, 유·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야간관광시설을 확충하여 명소화

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할 일이다.

예컨대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축제'의 경우 주야간 체험행사를 실시, 외국인과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 기능은 물론 관광지와의 연계효과로 소득파급효과는 2,437억원, 생산파급효과는 1,000억원, 고용효과는 2,272명이었다.

5억원 예산투입으로 수십배 경제이득을 창출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톡톡히 이바지하고 있어 지방문화자치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셋째, 음식 모양의 세련화와 국제화를 위한 지역음식인증과 품질관리 국가화가 요구된다. 지역음식문화와 기능보유자 국가인증제도 및 교육전수 제도화가 필요하다. 가전비법의 구전 단절을 막기 위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공공기관의 품질보증과 전수교육 체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음식조리법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특정지역의 음식명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기능을 전수받고, 비법을 찾아 기록 보존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해안 지역의 서낭당설화

김 선 풍 중앙대 민속학과 교수

우리나라 해양민속은 연구결과로 볼 때 미개 척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도만을 국한시켜 살펴 볼 때 비록 1937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강원도 내의 부락제 50여개를 집계·정리하여 동제 10, 산신제 9, 산천제 9, 동내대치성제 1, 성황제 15, 천제 5, 당고사 1, 도신제 1, 삼황사제 1, 부군제 1, 노제 1로 분류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지방의 부락제는 별반 거론된 바 없다.

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동해안 성황설화 내용과 그 주변의 이야기, 또 부락제의 근황과 기속(奇俗)·이속(異俗) 등 성황설화를 통해 해양민속을 분석·고찰해본다.

주문진부락제

주문진에는 1, 2, 5, 6리에 각기 성황당이 있다. 큰 것은 1리 성황꼬맹이(일명 성황재)에 있는 성황이며, 5, 6리의 것은 규모가 작다.

원래 '진이'란 여신을 모셨던 여성황은 주문진 2구 8리에 사는 심만봉(54)씨 집 부근이었으나 현재는 성황꼬맹이 서낭당 밑에 여성황당을 모시고 있다.

1954년 7월 3일에 지은 주문진 성황당은 동해안에서는 제일 큰 성황당인데 세 분 신상과 한 동자상을 모셔놓고 있다. 중앙에는 청송 정우복 선생의 화상인데, 그분은 이 지방 유학의 도를 꽃피웠고 문화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행정가로서도 유명한 개척자였기 때문에 연곡 현

민들의 추앙을 받았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쪽에서 오른쪽에는 '진이'란 여신이 서있고, 왼편에는 해수(정동, 안인진에서는 해신을 '해령용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용신을 '해수신'이라고 한다.) 여신이 서 있다. 진과 청송 사이 곧, 청송이 앉아 있는 용좌 옆에 한 어리아이가 기대고 있는데, 흥미를 끄는 것은 그 동자가 바로 전설상의 진이 아가씨가 낳은 유복자라는 것이다.

1년에 2회 즉 3월 9일과 9월 9일에 행사하여 순풍순우, 액운면역, 오곡풍등 등을 기원한다. 요즘은 3년에 한 번씩 대어제를 지낸다. 무당은 3일 후 파제일에 가서 하룻동안 굿을 한다.

토신으로서는 진이가 원서낭이고 더 오래되었으나, 조선시대는 관이 위가 되고 남성 상위의 시대였기 때문에 청송 선생신이 중앙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주문진 성황당은 일제시대에는 곰뻐라 신사 바로 밑에 있었는데, 하루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큰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신사를 넘어뜨렸다고 해서 영검한 성황신으로 받들고 있다.

주문진읍에서 동북쪽에 그리 높지 않은 산마루가 있다. 이곳에는 어가(漁家)가 밀집해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 성황당이 있다. 이곳이 바로 주문진의 오랜 전설을 지니고 있는 여성황이다. 주문진 읍민들은 해마다 음력 3월 10일과 9월 10일 봄 가을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지금의 성황당은 약 8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

정된다.

오늘날까지 해마다 이 서낭당에서는 풍어제를 지내고 있는데 당시의 현감은 현민을 한집 식구처럼 사랑했고 현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현민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금의 주문진6구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후 약 50년 전에 현감의 사당을 현재 여서낭당으로 옮겨 놓았다. 현재 그의 공덕비는 강릉시 명륜고등학교 후원에 있다.

안목부락제

안목은 강릉시 송정동의 일부였으나 현재는 견소동으로 되어 있으며 재부동 십리에 위치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큰 항이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의 안목은 이곳이 아니고 현 남향진이었으나, 그곳은 실제 배를 댈 수가 없어서 이 부락을 안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즉, 현 안목의 원래 이름은 전주리이며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옛날 전북 전주에서 이 섬이 떠내려 왔기 왔기 때문에 전주리라 불렀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주에서 세를 받아 갔다. 그 동네에 여섯 살 먹은 신동이 꾀를 내어 온 산을 칩으로 동여 매 놓고 세금을 받으러 온 전주 사람을 보고 “이 산이 당신네 산이라면 칩으로 동여 매놔오니 가지고 가시구려.”라고 하니 전주 사람이 말문이 막혀 그냥 돌아가 버렸고 그 뒤로 세금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도 한 아름 되는 통나무 같은 칩이 죽도에 많다.

숫서낭은 마을의 서남방 30m의 큰 소나무

숲인데 당 건물은 없고 진포베기만 서있다. 즉, 큰 소나무가 양쪽에 서 있고 중간에 진포베기가 있는데 그 모양은 V자 형이고 그 꼭대기에는 오리 세 마리가 앉아 있다. 한 마리는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며, 두 마리는 각기 서북방을 향하고 있다. 이 새들은 바다에 사는 갈매기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촌로들의 말을 빌리면 이 서낭당은 나무에 당을 쓰면 이상하게도 그 솔이 이유없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죽은 나무를 신목으로 삼아 당을 써왔다고 한다. 이처럼 부락민들이 당을 짓기 싫어서 안 짓는게 아니라 바깥서낭당이 집을 싫어하는 것으로 부락민들은 믿고 있다.

진포베기를 모신 성황당은 흙을 쌓아서 움처럼 만들어 놓았고 진포베기는 성황님 예단이라고 해서 흰 종이를 접어서 실로 붙들어 매냈다.

아무튼 모시는 성황수가 죽는 이유는 알 수 없고 신의 뜻에 따라 죽은 나무만을 향시 신체로 삼아오고 있다.

암서당(여성황당)은 마을 남방 끝 죽도봉 바로 밑에서 동북방을 향해 서 있는데 당 건물은 가로 4m, 세로 2m, 높이 2m의 단청 한식 기와집이고 두 칸인데 해방되던 해에 건축한 것이다. 현재 신주는 성황지신 1위만을 모셨고, 또 한 칸은 제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화상(여신상)이 있었지만 2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안인부락제

현재 성황당은 일제 강점기 때 철도 부설로 인해 다시 옮긴 것으로, 봉화산 중턱에 자리잡고 마을 향해 서 있다. 서낭당은 두 칸인데 한

칸에는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을 모시고 있고, 또 한 칸에는 제기를 놔두었다. 봉화산 정상에는 대관령을 향해 서있는 한 칸 반 정도의 해낭사가 있다.

제는 춘추로 정월 보름날과 가을 9월 9일에 지낸다. 3년마다 치르는 행사로 삼년돌이 큰굿(용신제)이 있는데, 4월 10일 지나 좋은 날을 받아 행사하며 동네 안전과 풍어를 빈다.

안인부락제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명주군 강동면 안인리 국도 옆 바닷가 조그마한 봉화산 꼭대기에 비바람으로 퇴색한 사당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이 해낭사다.

이 마을에 가난한 어부의 딸이 살고 있었다.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장부다운 충각만을 배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충각들은 처녀의 눈에 들지 못했다. 그런 중에 처녀의 나이 차서 이 마을 뱃사공과 혼담이 오가고 약혼을 하게 되었다. 약혼한 다음날 젊은 사공은 바다에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이 처녀는 자기의 약혼자가 꼭 돌아오리라만 믿고 봉화산에 올라가 날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끝내 죽어버렸다고 한다.

원래 해낭신은 처녀가 죽은 원혼신이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 남근을 깎아서 당에 매달고 치성을 드리면 만선(滿船)을 했다고 하며, 한 해 한 번씩 매단 신이 나중에는 꾸러미가 되었다. 고기가 안 잡힐 때는 당에다 오줌을 누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속신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해낭이 김대부지신에게 시집을 가고 나서 이번이 생겼다.

안인 앞바다에는 매년 전라도, 경상도에서



△ 신대를 들고 당집으로 향하는 제관과 무집단.

후리하러 오는 뱃사람에게 많았다. 한 번은 울진에 사는 뱃사람이 후리하러 와서 소를 잡고 치성을 잘 드렸는데, 모르고 예전처럼 신 몇 두름을 매달고 치성을 드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봉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후리꾼이 뚝 끊어졌고 남근을 바치지도 않는다고 한다.

강문부락제

강문은 경포에 인접한 어촌으로 이 부락이 형성된 것은 천여년 전이라 한다. 195세대에 인구는 704명의 부락인 강문은 원래 초당동에 속했으나 요즘은 강릉시 강문동으로 부른다.

매년 음력 정월 15일(춘계 예축제), 4월 15일(풍어제), 8월 15일(추수제) 3회에 걸쳐 거행하며 1년에 1회씩 큰굿을 하지만 요즘은 경비 문제로 하지 않는다. 큰 용주굿을 할 때는 3일간 계속하는데 굿노래는 14 석수가 불려진다.

강문의 성황당은 두 곳이 있다. 마을 서편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 성황당

골매기서낭당과 죽도 바로 밑에서 남서쪽을 향해 서 있는 여성황당(죽도 서낭당)이다. 한 칸 정도의 시우로 된 골매기서낭당에는 토지지신과 성황지신, 여역지신을 모시고 있다.

당집의 크기는 골매기서낭당이 1칸 정도임에 반해 여성황당은 3칸인데 그 중에는 여신상이 가로 90cm, 세로 120cm 정도 단에 봉인되어 있다. 마을 이봉진(강문동 5반 208번지) 노인 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때 김인영이란 분이 그렸다고 한다.

신상은 족두리를 쓰고 자줏빛 당의를 입은 여신이 좌우에 각각 흰색, 노랑색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입고 부채를 든 시녀를 거느리고 있다.

골매기서낭당과 여서낭당의 거리는 대략 100m 정도이며 골매기서낭당과 진떼백이의 거리는 약 40~50m의 거리가 된다. 진떼백이는 좀더 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삼자가 합쳐 삼각형의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진떼백이도 서낭님으로 모셔 ‘진떼백이서낭님’ 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5m 정도이고 꼭대기에는 안목의 진떼백이와 똑같은 나무 물오리 3마리가 앉아있다. 물오리의 방향은 모두 북쪽 대관령을 향하고 있는데(춘로들은 한양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 나무는 3년마다 별신굿할 때

바꾼다.

진떼백이는 현 초당동 권오열씨 눈에 있는데 안목과 다른 점은 장대 밑부분 1m 정도를 훑으로 봉분을 해놓았다는 점이다. 이봉진옹에 의하면 마을의 삼재 곧 수재, 화재, 풍재 등 환란의 재액을 위한 것이며 굿은 진떼백이서낭을 돌고나서야 시작된다고 한다. 초당의 어떤 사람은 진떼백이 옆에다가 모춤을 놔두니까 신기하게 벼가 피더라는 것이다. 만일 진떼백이서낭에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벼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호산1리성황당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인 갈릉제를 막 넘어서면 호산 6마을이 보인다.

이 마을은 농사도 짓지만 어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이다. 마을 서낭과 해서낭은 해망산 위에 함께 자리잡고 있다. 이 산은 속칭 3형제산의 하나라고 이른다. 본래 해망산은 울릉도에서 떠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경북 죽산의 댕섬이 작은집이고, 삼척 근덕의 덕봉산이 셋째 집이고, 이곳 해망산이 큰집이라고 전한다. 이 산은 노송과 향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고 영기가 서려있는 산이라고 여겨오고 있다. 특히 선달 그림날에는 꼭 호랑이가 이 산을 돌고 간다고 믿고 있다.

한번은 산에 있는 향나무를 그 동네 최씨 부부가 겨울에 베어 불 때고 미쳐버렸다는 실담이 전한다. 또 이 산은 영검하여 정상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신령한 산이며, 산 중턱에는 구멍이 있어 냇물 건너에서 그 구멍에 돌을 던져 놓으면 일년 재수가 좋고 총각은 장가를 갈 수 있는 행운을 안겨주는 구멍이라고 한다.

신남리(갈남 2리)성황당

원덕면 신남에는 남성기 승배 전설이 전하고 있다.

신남의 바다로 향한 산 언덕에는 수 백년 전부터 남근을 깎아 매달고 치성을 드리는 민속이 있다. 물론 해난사고가 없고 무사태평하며 매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치성의 주목적이 되고 있다.

신남리 바닷가에 미역을 따며 사는 가난한 어부의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애바위(현 서낭당으로부터 300m 지점)에 김을 뜬오리 떼를 타고 나갔다. 정신없이 해초를 따다가 그녀는 밀려오는 풍랑에 떼가 떠나려 간 줄 몰랐다. 떼를 잃은 처녀는 울며불며 애타게 구원을 청했으나 마침내 큰 풍랑이 그녀를 덮쳐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 바위를 처녀가 애간장을 태우다 죽은 바위라 해서 '애바위'라 부른다.

처녀가 죽은 후 마을에는 이상하게도 번고자 자주 생겼다. 처녀의 원혼 때문에 사람이 자주 죽고, 고기떼가 몰려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바닷가 언덕에 제단을 만들고 향나무에 남자의 신을 깎아 걸어놓고 치성을 드려 주었다. 그런 후에야 재앙이 물러가고 풍어가 다시 들었다.

이같은 사연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날과 10월 초닷새 망일날에는 이곳 어촌민들이 마을 엄씨성황(이 마을 최초로 개척한 분)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5명의 제관 중 3명은 엄씨성황에 가고 2명은 해서낭에 가서 재를 지낸다. 또 3년만에 풍어제를 지내고 있다.

엄씨서낭에서는 축을 읽지만 해서낭에서는 다만 입으로 “애기 서낭님(해낭서낭님), 부디 가는 고기 눈 감기고 오는 고기 손을 치고 고기 많이 잡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네 재산

도 많이 들어오도록 해 주옵시고 무사태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

물론 여자는 해낭에 갈 수 없으며, 해낭에 가고 가는 남근은 일인당 3개, 5개, 7개 등 기수로 가져간다.

갈남1리성황당

갈남1리성황은 백호서낭이다. 아마도 호랑이를 서낭으로 모신 곳은 한국에서 이곳뿐이 아닐까 생각된다. 호랑이는 개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30년 전까지만 해도 개고기만을 제물로 썼던 서낭이다. 요즘은 쇠머리와 우족(발 4개)을 쓰고 있다.

이 마을은 정초에 호랑이가 늘 지나가는데 동네 책임자인 계수에게만 보인다. 이 마을 사람들은 범이 이 지방을 이룩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범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 이 마을은 태백산령이 바다로 멀리 나가있는 특이한 지형이며 바닷가에는 호랑이굴까지 있다. 큰 당은 '백호서낭' 이고 해당에는 '해당 할머니' 라는 분을 모신다. 고축과 제일은 신남과 동일하다.

장호1리성황당

장호1리 성황은 솟서낭과 해당을 따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당에 남신과 여신이 공존하고 있다.(당 내에는 수부 2명이 있다)

이 마을 이시영(64) 옹에 의하면 본 서낭은 징소리(굿소리)는 금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굿을 안 받고, 3년 돌이 대치성을 올린다고 한다.

메는 두 그릇이고 수저는 3개를 놓고 제사한다. 화상은 관복을 입은 솟서낭 무릎 위에 첩이 앉아 있고 본마누라는 옆에 따로 그려져 있다.

메 한 그릇은 첩신과 솟서낭님이 함께 잡수시고 또 한 그릇은 조강지처신이 잡수신다고 한다. 본 서낭당은 500년 전에 어떤 마을 할아버지에게 현몽하여 모시게 된 서상당이라고 하며, 그분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한다.

장호는 천연항으로 예부터 부산에서 원산으로 가는 도중 어느 배나 한 번은 꼭 들렀다 가는 항이다. 조선말에 전라도 배가 원산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할 정도로 세찬 풍랑이었고 안개까지 짙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배가 표류하다가 어느 산에서 밝혀주는 붉은 빛을 따라 정박하니 그곳이 장호리였다. 이상한 일은 그 동네 주민들이 밝혀준 불이 아니었던 점이다. 그 후부터 서낭의 은덕이라 믿고 더 큰 치성을 드려 왔다고 한다.

이웅은 다른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도 이 마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염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노라고 자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서낭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

장호2리성황당

장호1리에서 북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서낭이 보인다. 장호리는 해신이 따로 없고 부부신의 화상만 있다. 이 곳도 장호1리와 마찬가지로 신체는 위패가 아니고 화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부부신 앞에는 2명의 수부신과 함께 용과 호랑이의 그림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함께 모신다.

이 지방은 원서낭님과 그냥 있고, 3대 4대 가서 수부만 교체된다고 한다. 즉, 서낭을 모시던 조상님들이 죽어 수부가 된다고 믿고 있으며, 4대 봉사의 관념을 서낭신에게도 대입시키고 있다.

임원서낭당

비아진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임원 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약 300세대가 살고 있다.

성황당은 마을에서 북방으로 1km 떨어진 곳에 사당으로 모시고 있고, 당 옆에는 솟대 하나가 서 있다. 서낭당은 가로 4.2m, 세로 3.6m, 높이 2.3m의 기와집이다. 당내에는 조강지처신과 첩신이 있어 흥미롭다.

제사는 이장이 택일하여 부락민과 함께 올리는데 1년에 한번 부락제를 올린다. 날짜는 음력으로 정월 보름경으로 한다.

이 지방은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농작을 빌고 어업을 빌며 동네 평안, 무병, 무재해(해상사고)를 빈다.

제관은 임원 지방의 고령자 두 분과 이장으로 구성되며, 하루 전날 목욕재계하고 다음날 청결한 마음으로 제단에 나와 부락민들과 함께 행사한다.

문암진1리성황당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는 포구로 1만호가 살았다 해서 만포만개리라고 부르다가 조선말에 운암리로 고쳤다. 속칭 망개마을이라 불린다.

암서낭은 일명 부신당이라고 부르는데 노처녀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신(61) 할머니에 의하면 어느 현감과 기생이 놀러 왔다가 기생이 실족하여 죽은 신이라 한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바위에는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곳에 남근을 꽂아 놓고 치성을 올리면 풍어가 든다고 한다.

제주도 지킴이 신당과 돌챙이

주강현 한국민속연구소 소장

섬의 한스러움이 지금도 안으로만 잦아드는 외진 바닷가. 예나 지금이나 바람도 끓이지 않고 돌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래서 어느 갈라터진 촌로의 손으로 다듬은 지킴이들과 공동체의 수호신인 신당이 우리들을 마중하고 있음을 그들은 행여 헤아리거나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다녀온다. 그러나 관광지 주변만 기웃거리다가 돌아올 뿐, 정작 제주도문화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제주도의 신당을 모르고서야 제주도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 신당이야말로 제주도의 지킴이들이다. 관광객의 눈에는 잘 띄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나, 설혹 신당을 본다고 하더라도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치기 마련이다.

마을 역사의 구심점 본향당

제주도에는 어느 마을이고 마을 구심점으로 공동체신앙의 거점인 본향당(本鄕堂)이 존재하며 대대손손 마을 역사를 들려주는 ‘본풀이’가 전해온다. 제주도의 각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본향당의 ‘본향’이란 마을의 수호신을 말하며, ‘본’은 근본·본원·내력을, ‘풀이’는 설명을 의미해, 결국 본풀이란 당신(堂神)의 근본을 풀이하고 설명한 살아 있는 신화로서 마을공동체의 유제를 상징한다. 마을의 살아 있는 구전역사로서 당신·일반신·조상신 등 모든 신들의 근본을 풀이하는 산 신화인 것이다.

본풀이는 대략 세 가지로 나뉜다. 본풀이와 석상을 일반본풀이와 당본풀이, 조상본풀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본풀이는 자연이나 일반적인 관념의 사상을 차지하는 신들의 이야기이며, 당본풀이는 마을 수호신인 당신의 내력담이고, 조상본풀이란 집안 및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본풀이는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살아온 내력이며, 공동체 성원들의 삶의 내력들을 신화로 만들어 놓은 민중의 역사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마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탓에 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산 역사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당본풀이는 마을공동체의 형성 내력을 증언해 준다. 각각의 본풀이마다 신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신당과 더불어 제주도에는 무수한 석상들이 전해져서 읍성이나 마을을 지켜준다. 석상이란 말을 제주도에서는 돌챙이라 부른다. 이른바 돌챙이문화가 되는 것.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돌하르방. 돌하르방이란 원래 돌할아버지란 뜻이다. 돌하르방은 대략 육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후기에 전국에 넓게 퍼진 석장승, 또는 벽수와 같은 민중 돌조각품과 돌하르방의 조형적 상통점을 따져보자. 주먹코, 왕방울눈, 파격적인 해학성, 푸짐한 표정...서로 닮은 게 하나



△ 제주도의 상징 돌 하르방

돌이 아니다. 각각의 민중적 조형물들은 나름의 풍토 속에서 자라나왔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성격은 하나로 여겨진다. 소박하고 질박한,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조형성.

돌하르방, 제주도 토착적 요소의 결정체

제주도 돌하르방이 조선후기 장승문화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같은 돌하르방의 조형성이 갖추어지기까지 제주도 본토의 토착적 요소들이 총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란 어떤 영향관계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경우는 없다. 늘 상대적 독자성을 지니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국가적으로 읍성을 축조하면서 육지부의 석상과 같은 의미에서 돌하르방을 세운 것은 분명하나, 토착적인 제주도 석상

전통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민속유산이 대개 그러하듯, 돌하르방 기원에 관한 정확한 문헌은 남아 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돌하르방의 전체 숫자다. 제주목(제주시) 21기, 대정고을 12기, 정의고을 12기,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2기(제주시에서 옮김), 모두 합해서 47기.

원래는 48기였는데 1기는 소실되었다. 제주 3읍이었던 제주목·정의현·대정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주변의 마을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읍성 수호신이었음이 분명하다. 정낭을 걸쳐 놓았던 구멍이 있는 경우로 미루어 보아 수문장 역할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도시화에 따라서 돌하르방의 위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주대학교, 제주시청, KBS제주총국 등지로 옮겨진 것이다. 심지어 관덕정과 삼성혈 입구의 돌하르방도 옛 위치 그대로가 아니다.

제주도문화의 상징 돌하르방

오늘날, 제주도민들에게 돌하르방은 단순한 읍성수호신의 의미만 가진 게 아니다. 이제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문화적 상징이자 자부심의 표지로 여겨진다. 더구나 끊임없이 새로운 돌하르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잔존문화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문화다. 송중원·장공익옹처럼 일생을 돌하르방만 다듬어온 장인도 여럿 된다.

제주도에는 돌하르방의 여러 ‘친인척’이 살아왔다. 농사를 주관하는 마을신인朝天석(朝天石), 제주시 동서쪽을 지켜주는 동자복(東資福)·서자복(西資福) 마을미륵, 동자석, 거육대 따위가 그것이다. 모두 현무암을 깎아 만든 점에서도 돌하르방과 정서적·조형적 연대를 보



△ 제주도의 신당

여준다.

지금은 제주대학교 박물관 야외 마당에 있는 조천석은 제주시 건입동의 농사신이다. 19세기 것으로 미루어지는데 높이는 불과 87센티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조천석은 형태상으로 돌하르방과 전혀 다르다. 돌하르방 말고도 다양한 석상 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물의 하나이다.

제주도 석상문화의 으뜸은 ‘동자석’

무엇보다 제주도 석상문화의 으뜸은 동자석이 아닐까. 아담한 크기의 다양한 동자석이 쌓여 서서 무덤을 지켜왔다. 글자 그대로 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아이 형상의 석상인데, 그 토속성이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끈다. 불행하게도 이들 동자석은 많은 수난을 당했다. 지금도 수집가들의 호사 취미로 팔려가거나 도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육대도 반드시 거론하고 넘어가야 한다. 거육대는 돌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세운 것이다. 제주시 영평동의 하동 거육대를 찾아가니 냇가의 잡목 우거진 덩굴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하동은 풍수지리적으로 남북이 허하다고

한다. 그래서 ‘남대북탑’이라고 하여 남쪽에는 거육대를 세웠고, 북쪽에는 방사탑을 세웠다. 돌하르방이 읍성 경계와 수호신 기능을 했음과는 다르다. 오히려 육지부의 석장승과 비슷한 기능이다. 마을 공동체문화의 전형인 바, 돌하르방 창조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풍부하고 다듬기 쉬운 용암석을 이용한 다양한 이들 석상전통들이 큰 줄물기를 형성하면서 전해오다가 육지부의 석상과 만나면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돌석상문화를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재질이 다르면 조각도 달라지는 법. 육지부에서의 단단한 화강암, 제주도에서의 독특한 용암바위, 장인의 손끝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또한 마을미륵도 중요하다. 제주읍성에는 동문·서문 밖에 미륵이 각각 1기씩 전해지고 있으니, 동자복(東資福)과 서자복(西資福) 미륵이라 부른다. 마을에서는 미륵돌미륵, 미륵부처 등으로 불려왔다. 하나는 제주시 동쪽 건입동에, 하나는 용담동 한두기(大甕浦口)에서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시원스런 활주로와 조금은 이국적인 풍경들. 늘 그렇듯이 몰사람들은 이런 제주의 색다른 풍광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돌하르방, 도깨질, 물질, 해녀, 지들커, 디들팡, 굴묵, 그늘케, 물구덕, 아기구덕, 대남피리, 집줄농기, 용천수, 스당클긋, 고팡물림... 그러한 토속적인 제주도 말들에 담겨져 있는 제주민의 한과 생활 모습을 몰사람들이 이해할 것인가.

섬의 한스러움이 지금도 안으로만 찾아드는 외진 바닷가. 예나 지금이나 바람도 끊이지 않고 돌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래서 어느 갈라터진 촌로의 손으로 다듬은 지킴이들과 공동체의 수호신인 신당이 우리들을 마중하고 있음은 그들은 행여 헤아리거나 할 것인가.

우리 민속에 나타난 원숭이의 상징적 의미

천 진 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문학박사



△ 청자 모자원숭이연적 (고려 12세기, 간송미술관소장)

정초가 되면 누구나 올해는 무슨 띠(動物)의 해이며, 그 띠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한 해의 운수를 예점하려는 풍속이 있었다. 십이지(十二支)의 띠동물은 매년 바뀐다. 우리는 매년 그 해의 수호신이고 상징동물

이라 할 수 있는 띠동물의 외형이나 성질, 행태 등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 새해를 설계하고, 한 해의 운수를 예견했다.

2004년 갑신년(甲申年)은 잔나비띠의 해이다. 잔나비, 즉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 갖가지의 만능 재주꾼이고, 자식 부부간의 극진한 사랑은 사람을 뺄 정도로 애정이 섬세한 동물이다. 잔나비는 재빠른 원숭이로 풀이된 우리의 옛말이다.

원숭이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에 관한 확실한 문헌기록은 없다. 다만 조선 초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들어온 듯하다는 가설만 있을 뿐이다. 예로부터 ‘東國無猿’이라 하여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원숭이에 얽힌 이야기가 그리 흔치는 않다.

원숭이가 악귀 막을 수 있다고 상상

잔나비, 즉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 갖가지의 만능재주꾼이다. 동양에서는 몇몇 불교를 신봉하는 종족을 제외하고는 원숭이를 재수없는 동물로 기피하면서도 나쁜 기운(악귀)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동물로 여긴다. 특히 중국에서는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갈 때 도

중에 온갖 요괴와 만나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손오공은 72반 변화술과 여의봉으로 잡귀를 물리치고 스님을 어려움에서 구해낸다는 이야기가 있어 원숭이는 손오공처럼 요괴를 물리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며, 튼튼한 건강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 민화의 원숭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고건축물이나 사찰의 지붕 위에 보면 악귀나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숭이 잡상(雜像)을 조각해서 얹어 놓았다.

우선 원숭이가 우리 민족에게 비친 대체적인 모습은 옛날이야기와 속담에서는 피 많고 재주 있는, 흥내 잘내는 장난꾸러기로 이야기가 되고, 도자기나 회화자료에서는 모성애와 가족애를 강조하고, 높은 벼슬, 스님을 보좌하는 모습, 천도 봉숭아를 들고 있는 장수의 상징, 포도를 따먹는 부귀다산의 기원 등으로 많이 표현된다.

속담은 잔재주 과신 경계 내용 많아

그러나 원숭이의 속담은 주로 원숭이의 모양이나 재주를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잔재주를 너무 믿어 일을 망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많다.

원숭이 낫짝 같다, 원숭이 불기짝 같다, 원숭이 똥구멍 같다... 등의 속담은 빨간 원숭이의 얼굴과 불기짝에 빗대어 술이 취해 얼굴이 붉



△ 원숭이탈

게 된 사람을 보고 하는 속담이다.

원숭이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북쪽에 사는 일본 원숭이는 얼굴과 손, 엉덩이는 붉은색 피부로 덮여 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로 연결되는 말 이어가기 놀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은 빨간색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원숭이 흥내내듯 한다, 원숭이에게 나무 오르는 법을 가르친다, 약빠른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관 쓴 원숭이 나무에 잘 오르는 원숭이도 가르치면 더 잘 오른다,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朝三暮四) 등의 속담은 원숭이의 재주와 잔피를 비유해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경솔함과 잔재주, 잔피를 경계하는 비유이다.

원숭이는 대부분 나무에서 산다. 우리 주위에서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을 나무다람쥐라고 하는데, 이 나무다람쥐 이상으로 나무를 잘 타는 동물이 바로 원숭이다. 흡사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 다니는 것 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어리석은 지혜, 잔피의 대명사

원숭이는 동물계에서 가장 진화되었고, 인간과 닮았으며, 흉내내기와 재주부리기를 잘한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지혜, 잔재주, 잔피의 대명사로 원숭이를 바라본다. 미숙한 지혜를 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원숭이의 지혜라고 한다. 자기의 재주만 믿고 까불거리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원숭이의 잔재주에 불과해 스스로 제 발등을 찍게 된다.

양주별산대놀이를 비롯하여 봉산탈춤, 해주가면극, 강령탈춤 등에서 원숭이가 나타난다. 강령탈춤에서는 원숭이가 붉은 옷을 입고 타령장단과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추다가 들어간다. 또 양주별산대의 원숭이는 진홍색 바탕으로 소나무를 깎아 코를 만들었으며 얼굴 가장자리에는 털을 둘렀고 눈은 둥글고 오른쪽 눈자위가 유난히 크며 금색을 칠한 원숭이탈을 쓰고, 붉은 쾌자를 입고 붉은 행전을 치고 신장수춤 과장에 등장하여 모든 행동을 신장수와 똑같이 흉내를 낸다. 탈춤에 등장하는 원숭이는 탈뿐만 아니라 의상도 원숭이처럼 붉게 입고 대사 없이 동작만으로, 무언극으로 원숭이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는 원숭이를 삼국시대 사람들은 보았을 리 없었을텐데, 왕의 무덤 호석이나 부도 등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실제 살아 있는 원숭이는 없었을지라도 십이지의 관념이나 원숭이의 형상은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자식과 부부사랑은 사람 뺨칠 정도

토우나 십이지상에서 원숭이가 일찍부터 등



△ 자연생태계에서 원숭이의 가족애는 지극하다.

장한다. 이때부터 등장하는 원숭이상이나 조각은 무덤의 호석이나 탑상, 불구, 부도 등에서 머리는 원숭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신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도자기에서 원숭이는 도장의 꼭지로, 혹은 작은 항아리, 연적, 결상, 장식품에서 장식문양이나 그릇의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

도장의 꼭지에 표현된 청자 원숭이는 원숭이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고, 청자 연적이나 장식품의 원숭이 모자상은 애절한 모정을 그리고 있다. 원숭이의 자식 사랑이나 부부사랑은 사람을 뺨칠 정도라고 한다. 갓난 새끼가 손발에 힘이 붙기까지는 결코 품속에서 떼어놓는 일이 없고 가슴에 안거나 등에 업는다. 동물원에서 기르는 원숭이 부부도 한편을 사별하면 나머지 한편도 먼저 간 배우자를 그리다 끝내 죽는 일이 많다는 것은 동물원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설명이다.

단장의 슬픔도 원숭이에게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단장(斷腸)의 슬픔인 부

모 자식간의 이별의 애닦음도 바로 원숭이에서 시작된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다음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국 남북조시대 진(晉)의 환온(桓溫)이 초(楚)를 치기 위해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양자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을 통과할 때였다. 환온의 부하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실었다.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왔으나 물 때문에 배에는 오르지 못하고 강가에서 울부짖었다.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강가의 험난한 벼랑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왔다. 배는 백리쯤 나아간 뒤 강기슭에 닿았다. 어미 원숭이는 서슴없이 배에 뛰어올랐으나 그대로 죽고 말았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천도복숭아는 열매를 한 번 맺는데 3천년이 걸리고 그 열매가 익는데 다시 3백년이 걸리는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숭이의 그림에서는 원숭이가 바로 이 복숭아를 먹거나 손에 쥐고 있다. 이 모습은 오래 사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

문방사우에 표현된 원숭이 고위직 소망

도자기와 벼루의 문양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 사이로 다니는 모습이나 포도를 따먹는 원숭이 모습이 그려 있다. 포도문의 원숭이는 숲속 원숭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면서 풍요다산을 기원한다. 풍요다산을 의미하는 포도알을 원숭이가 따먹는다는 것은 바로 부귀다산의 상



△ 원숭이 석상

징하는 것이다.

그림이나 문방사우에 표현된 원숭이는 높은 직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원숭이 후(猴)자는 제후 후(侯)자와 발음이 같아 원숭이는 곧 제후, 높은 벼슬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원숭이 해에 태어난 잔나비띠는 천부적인 재주를 지닌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재주를 너무 믿어 방심하므로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면도 있다고 한다. 흔히 원숭이띠 하면 잔띠를 연상하게 되어 가볍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갑신년 올 한 해에는 잔띠가 아닌 큰띠가 슬기로 승화되어 평화롭고 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장가계의 절경, 심리화랑

중국문화기행

살아 있는 무릉도원 張家界



이 기 화
고창문화원장

이번 중국여행은 전국 우수문화원 관계자 해외연수의 일환으로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명한 무릉도원이 포함되었기에 구미가 당기는 코스였다.

작년 11월 3일 오전 9시발 중국민항기편에 몸을 실은 일행은 1시간 45분만에 상해 푸둥공

항에 내렸다.

인천국제공항처럼 세련되게 단장되지는 못했으나 국제적인 경제무역도시다운 면모와 상해지역의 눈부신 발전상을 한눈에 어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외형적인 광활한 공항 규모도 그렇지만 기존의 도심에서 불과 6분만에 당도할 수 있다는 고속전철이 부설되었다고 하니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첫째 날의 코스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와 홍구공원(虹口公園), 그리고 외탄(外灘) 지역의 관광자원이었다.

차창 풍경을 통해 세계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었고 거대 중국의 만만한 야심이 우리 경제를 바짝 뒤따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민족수난사의 현장 - 상해임시정부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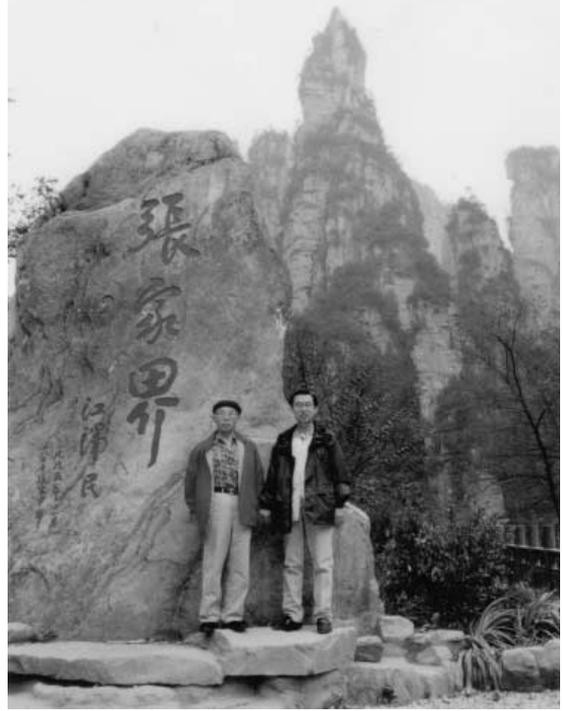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마당로(馬當路)에 있는 3층 벽돌집으로, 임시정부는 1926년부터 운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 직후까지 7년 동안 이 곳을 청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편도 1차선의 비좁고 초라한 도로에 접해 있어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좁고 낮은 그리고 허름한 중국식 연립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청사는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조명이라도 해주듯 안타까운 모습 그대로였다.

3개층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비좁고 초라한 복도와 계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1층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단체로 촬영한 사진이 걸려 있고 2층에는 김구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다. 비록 임시라고는 하나 한 나라의 정부 청사였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다. 역사 유적을 우리 손으로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숙소로 쓰였다는 3층에는 1인용 침대 세 개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저렇게 비좁은 숙소에서 어떻게 함께 생활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울울답답한 심정이다. 그분들의 고난 앞에 우리 일행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김구 주석이 집무했던 방에는 작은 책상 두 개가 비좁게 들어 앉아 있다. 화장실이 없어 요강으로 대체하였다는 현장설명을 듣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요즈음에 와서야 청사 입구에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大韓民國臨時政府舊址)' 라는 뜻말이나 붙을 정도이고 청사 내부의 수리는 중국에 진



△ 강택민 주석의 글씨가 새겨진 장가계 표지석 앞에서(왼쪽이 필자)

출해 있는 어느 기업체에서 나라의 체면을 고려해 맡아 해주었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굳게 닫혀 있는 매헌기념관

지금은 노신공원(魯迅公園)이라고 불리는 홍구공원(虹口公園)은 시내 중심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항일운동의 큰 전환점과 조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확인시켜준 운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다.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중국이 전쟁 중에 중국군 3개 군단을 희생시키면서도 일본군에 대패하여 그 곳대 높았던 자존심이 여지없이 추락하고만 상황 속에서 1932년 4월 29일 운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는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일대 충격이었다.

그 당시 장개석 주석이 “중국의 백만대군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일개 대한의 젊은이가 감당했다니 장하기 그지없다.”고 격찬하지 않았던가.

일제에 항거하여 초개와 같이 목숨을 내걸고 폭탄을 투척하여 민족의 원한을 풀어준 역사적



△ 노신공원내 매헌기념관을 찾아서

인 그 현장 앞엔 중국의 대문호 노신의 묘역이 있다. 노신의 묘는 그가 타계한지 20년이 되는 1956년 10월에 상해의 서쪽 교외에 있는 만국공묘(萬國公墓)에서 이장해왔다고 한다. 묘 앞에는 한 손에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노신의 좌상이 있고 그 뒤에 쓰인 묘비 상단의 노신선생지묘(魯迅先生之墓)라는 글씨는 모택동(毛澤東) 주석의 친필이라고 하는데 노신은 마지막 10년 간의 생애를 이곳 상하이에서 마쳤다고 한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에는 윤 의사의 흉상과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일제에 항거했던 역사의 현장임을 말해주고 있을 뿐 중국정부에서 애쓴 흔적은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도 문이 닫혀 있어 외양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무거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세계의 자연유산 - 무릉도원

둘째 날과 그 다음날의 답사코스는 장가계(張家界)의 국가삼림(國家森林)이자 세계의 자

연유산 명품으로 등재된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중심으로 천자산, 하룽공원, 원가계, 천하제일교, 금편계곡 등 장가계지역의 문화유산이다.

장가계는 호남성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싹홍 국제관광도시. 장가계의 원어명은 대용시(大庸市)였으나 1944년에 장가계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확정된 독특한 자연 경치구이다. 총면적 392km², 동서 길이 31km², 남북 너비 15.5km², 핵심 경치구 면적 264km²이며, 크게 장가계삼림공원, 삭계곡자연보호구, 천자산자연보호구의 세 개의 풍경구로 나뉘어진다. 금년부터 구천동(九天洞)이 개발되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감탄의 연속으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장가계의 경치는 장엄 바로 그것이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깊어 산적들의 둔취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가족(土家族)을 위시한 1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이 산골짜기로 밀려들었고 다수 민족은 얼씬도 하지 않은 첩첩산중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적마다 아찔한 두려움과 불안개로 인해 마음이 심란하고 칙칙해졌다. 기암괴석들이 안개



△ 항주의 서호

속을 헤치고 고개를 내밀 때마다 우리 일행은 도취일색이 되었다.

장량과 그 가족의 은둔지 - 장가계

장가계는 본래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천하의 주도권을 놓고 싸울 때 유방의 참모 장량(張良)과 한신(韓信) 두 장군이 항우(項羽)를 대파하고 천하를 통일했다. 이후 영예롭게 지내던 한신이 결국 유방에게 죽게 되었다. 그러자 앞날을 짐작한 장량은 그의 가족을 거느리고 이곳에 와서 은둔생활을 하며 천수를 누렸다고 전하며, 그를 상징해 장가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안개의 구름띠로 인해 마치 신선이 되어 구름 위로 솟구치는 듯하더니 마침내 천자산(天子山) 제일 높은 봉우리에 도착하였다. 바위 틈새를 비집고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속에 바위 산이 바스라지지 않도록 스스로 몸을 낮추어 외로운 벼랑 끝에 웅크린 채 서서 깨달음의 경지를 일깨워주는 듯하여 자연법칙의 순리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1년 내내 천둥 번개는 물론 폭우나 태풍을 모르고 산다는 이곳이야말로 속세를 벗어난 무릉

도원이 아닌가 싶다. 원씨(元氏) 마을인 원가계에서 천하 제일의 절경을 음미하는 그 맛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그 끝에서 하늘을 찌르듯 서있는 준봉들을 낮을 놓은 채 응시할 따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천하제일교를 건널 때에도 천길 낭떠러지 발 아래 계곡이 운무에 덮여 있어 아찔한 생각을 접을 수 있었음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이백(李白)이나 두보(杜甫)가 이 경관을 보았다면 어떻게 읊어냈을까 실로 궁금한 생각이 든다.

천하제일교, 소원 담은 자물쇠 주렁주렁

천하제일교는 천길 낭떠러지를 딛고선 봉우리와 봉우리들을 이어주는 아슬아슬한 다리인데, 다리 곳곳에 자물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갖가지 소원을 자물쇠에 담아 다리 난간에 채워둔 채 열쇠는 천길 아래로 던져버려 영원한 미궁 속에 자기 소원을 묻어 둔다는 전설적 사연이, 화성으로 우주선이 가는 이 시대에 엄존하고 있다니 미상불 할 말이 없었다.

보봉호의 뱃놀이와 백장협의 삼림욕을 겸한 산책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 침대열차를 타고

장가계에서 유주(柳州)까지 무려 13시간의 철도여행길에 올랐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르면 서안(西安) 여행은 역사도시라서 찾을 곳이 하도 많아 귀가 아프고, 북경(北京) 여행은 이것저것 다리푼 팔기에 피곤하고, 계림(桂林) 여행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느라 목과 눈이 아프고, 장가계(張家界)는 말이 필요 없이 보자마자 아! 감탄사가 터지는 여행이라고 한다.

빠어난 계림 산천과 리강을 거쳐 항주로

넷째 날 계림관광을 위해 야간열차의 종착점인 유주(柳州)에 도착하였다. 유주는 장나무 숲으로 유명하며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활한 공업도시였다.

‘죽으려면 유주 가서 죽어라’ 하는 유주 특유의 속담이 있다. 유주에서 나는 장나무로 관을 쓰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계림을 다녀온 사람이면 진안 마이산(馬耳山)은 계림의 작은 한 조각을 떼어다 놓은 것으로 착각이 된다고 한다.

계림산천 천하제일이라 하여 계림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디를 가나 계수나무 천지이다. 가을철이면 노르스름한 꽃이 피어 달콤한 향기가 관광객의 옷에 배인다. 마이산 모양의 크고 작은 돌산들이 낮은 병풍처럼 둘러 있다. 장가계에 비하면 평안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계림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다. 아열대기후 탓인지 살찐 사람들이 적은 편이다.

‘계림산수갑천하’(桂林山水甲天下)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림은 산수가 빼어난 곳이다. 이런 천혜조건 때문에 예로부터 술한 시인과 화

가들의 글과 그림의 소재가 되었으며 오늘날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 줄기의 물이 흐르다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리강을 둘러보았다. 그 옆으로 자리하고 있는 관암동굴 역시 석회암동굴로서 장가계에서 본 황룽동굴보다는 작았지만 아름다운 돌기둥들이 오묘하고 인상적이었다.

동굴 안에 펼쳐진 천국을 지나 지하수가 흐르는 지옥거리를 거쳐 우리는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인간세계로 빠져나왔다.

돈을 물 쓰듯하는 한국 사람과 물을 돈 쓰듯하는 중국 사람을 비교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는 한국 사람과 남의 눈을 개의치 않는 중국인은 매우 대조적이다.

석회암이 많아서 생수를 그냥 마실 수 없는 곳이라서 가는 데마다 돈을 주고 물을 사먹어야 했다. 이런 연유에서 중국은 차문화(茶文化)가 일찍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넓은 땅덩이지만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다.

닷새째 날은 절강성의 성도로서 예로부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지상에는 소주·항주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전설의 고향이다. 또한 천하의 문장은 항주에서 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중국의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태어난 문화의 도시 항주를 비롯해서, 그 서쪽에 자리잡고 있어 붙여진 서호(西湖)의 경치를 관람하고 상해의 역사박물관과 차를 재배하는 농장 등을 돌아보는 관광으로 5박 6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死去南楊州에서 40년 향토사 연구



사거남양주 (死去南楊州)

동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남으로 남한강이 흘러 어울림을 이루는 곳. 봉선사 대종, 광릉, 사릉, 광해군묘, 수종사 5층 석탑, 양지리 향나무 등 45여 종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문화유산 박물관 남양주시.

임병규(65) 관장에 따르면 남양주는 선사나 고대보다는 조선왕조 500년의 유물 및 유적지가 다량이며 특히 명당으로 알려져서 장묘문화가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임 관장의 사무실 벽면에는 조선 500년 왕실 연대표가 붙어 있는데 왕실 가운데 묘역이 남양주에서 발견된 경우 색칠을 해 놓았다. 그런데 언뜻 한눈에 봐도 색칠한 부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 관장은 “옛말에 생겨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去龍仁)이라고, 살아서는 진천서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묻힌다고들 했지만 그 말을 무색케 할 정도로 명당을 찾아 남양주에 묻힌 이가 많다.”고 말한다.

현대에 이르러 육로가 발달되었지만 수로가 발달했던 과거에는 한강을 타고 오르던 선비들이 남양주에 머무르거나 거처로 삼아 지내면서 뛰어난 문장을 많이 남겼다고 한다. 일반에도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 선생이 그러했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러했다. 특히 고산은 남양주시 수석동에서 유래된 호명이라고 전해질만큼 남양주와 인연이 깊다.

국토는 역사를 알고 있다. 땅의 들숨과 날숨은 인간과 함께 했고, 몇 세기가 흘러도 땅은 선인들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미 흘러간 역사를 역류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전념한 지 40여년.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임병규 관장은 우리 향토문화와 전통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일성을 지른다. 세월 풍파에 씻긴 연후에 후회한들,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 다산 정약용 선생 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금석문, 탁본

금석문(金石文)은 쇠, 돌, 나무 등에 새겨진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금석문을 통해 당대의 인문발달의 연원을 알 수 있고 서체, 화풍을 연구하는 등 다방면의 학술적 탐구가치를 가진다. 금석문은 시대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인 것이다. 그러나 이도 풍파에 찢겨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탁본이 필요하다. 탁본이란 금석문에 새겨진 글, 문양을 먹물을 이용해 종이에 그대로 뜨는 방법을 말한다.

탁본은 6세기말 수나라 때부터 유래되어 사료 연구와 전대 서예가들의 서체 양식을 익히는 데 쓰였다고 한다. 묘역에 새겨진 글귀나 문양, 나무에 새겨진 다산의 글 등의 탁본은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 작지만 큰 통로가 된다.

임 관장은 지난 2000년부터 남양주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양주향토사료관에는 탁본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 금석문 테마 박물관이 있다. 봉선사 대종, 금류동천, 취석 및 광해군, 영의정 김육, 김원효 묘역 등에서 발견되는 해태문, 기린문, 일월상도, 운학문 등의 갖가지

문양들이 전시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사료로서 탁본이 지니는 의미가 중대한 만큼 테마박물관에서는 연중 국내 유일의 탁본 체험 교실도 실시된다.

“기록이 마모되기 전에 탁본으로 떠서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과거와 현재가 단절될 우려가 있지요. 그러나 이미 손실된 금석문들도 많습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아는 이웃 나라에 몇억씩 받고 밀반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임 관장은 문화유산을 간수하는데 발빠르지 못하고 돈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현대인들에게 혀를 꼰꼰 찬다.

그러나 현장에서 탁본을 뜨는 일은 그리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대상물에 종이를 얹고 물을 뿌린 다음 먹방망이로 두드리는 과정을 거치는 탁본은 바람이 많고 습도가 높은 날은 어렵다. 또 높이가 보통 2m가 넘는 신도비의 경우는 여러 장의 종이와 필요하고 여럿이 함께 해야 가능한 작업이라 어려움이 따른다.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라”

임 관장은 충남 천안 태생으로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한 날 풍경을 그리기 위해 남양

주에 다니러 왔다가 소나무의 절경에 반해 남양주 사람이 되고 미술사를 연구하는 것이 시발이 되어 오늘의 향토사학자에 이르렀다는 것이 임 관장의 설명이다. 남양주 사람이 된 이래 이 일대는 발 안 디딘 데가 없을 정도로 반평생을 향토사를 파헤치는 데 전념해 왔다.

금석학자이자 한학자이며 임관장이 스승으로 섬기는 고 청명 임창순(1914~1999) 선생은 그에게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라.”고 늘 당부했다 한다. 아직도 안 잊혀지는 스승의 말씀 한마디는 그의 연구활동에 힘을 실어주었고 고전을 탐독하게 했으며 역사의 현장에서 돌맹이 하나라도 증거의 단서가 됨직한 것은 놓치지 않는 집념의 사람으로 굳혀 주었다.

“부정확하게 알려지는 역사적 사실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대로 고치고 알리는 것도 저의 몫입니다. 가령 최근 작업중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 내용에도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잘못을 지적하고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책에는 ‘수종사 부도탑’이라고 쓰여 있는데 올바른 표현은 수종사 정의옹주 부도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부도탑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누구의 것인지를 칭하는 인명이 오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 임 관장은 저자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질책한다.

향토문화에 대폭적 지원 있어야

임 관장의 이력은 남양주 역사 그 자체다. 그는 남양주시내 고산촌, 송익필 생가, 석실서원 지표조사, 정가네 집터, 박문수 집터 등의 발굴

실적을 갖고 있으며 타 지역 및 국외 발굴로는 금강산 금강문 암각문, 금강산 세조 행궁지, 일본 대마도 덕혜옹주 시택, 중국 길림성 문익환 목사 생가와 운동주 생가 등 역사의 뒀안길에 파묻혀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2000년에는 4년 6개월에 걸쳐 전 6권의 남양주시지를 완성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논문과 학술발표를 해오고 있다. 현재도 문증이 완료되어 책으로 재탄생할 때만을 기다리는 문서들도 꽤 두껍다.

“아직 남양주의 장묘문화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싶어도 수시로 길을 닦아 묘를 다른 데로 옮기는데 공무원은 새로 옮긴 데를 안 밝히거나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 정확한 묘자리를 알아내는 것이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임 관장은 정부 지원이 열악해 향토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음을 성토했으며 향토문화에 투자와 관심을 아끼는 정부 및 문화원에 대해 그간의 불만을 털어놓는다.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게 지역의 향토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고 임 관장은 ‘있는 것마저도 파괴한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대조적인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에는 국민 5,000명당 박물관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10%도 채 못 따라가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각 지역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게다가 향토사학자들마저 향토사를 연구하기보다는 국사에 더 치중하는 게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몸과 마음 쇠해도 마약 같은 향토사연구

당장이라도 사무실을 빠져나가 국토를 밟아야 할 몸이지만 ‘거마비가 없어서 못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임 관장은 40년 향토사 연구로 줄곧 산과 들로 다니느라 몸은 쇠하고 뜨겁던 초심도 차차 식어졌다고 말한다.

허공에 대고 메아리 없는 소리 지르기에 도지쳤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절실함도 덜해졌으나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그리고 ‘이 품에 살게 했으니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연구에 전념해 왔노라.’고 말한다.

임 관장은 앞으로 남양주 향토사 작업을 서서히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연구가 다 끝나서 그러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직도 산더미같이 많다’고 하지만 남모를 사연이 가슴에 맺힌 듯하다.

대신 다시 고향 없는 자유의 몸이 되어 연구

를 필요로 하는 타지로 떠날 예정이란다. 강원도 정선, 평창 등지를 운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남양주향토사료관은 도약을 한번 꾀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사료관의 전신이던 덕소초등학교 팔당분교 건물을 철거하고 400여평 규모의 박물관을 재건한다.

임 관장은 또 올해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맺고 금강산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할 계획. 지금까지 30회 가량 답사를 다녀온 금강산. 남양주의 선인들은 금강산에 올라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글을 남기기도 해 향토사적으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임 관장은 금강산 조사자료를 정리해 고이 잠들어 있던 옛 문화의 면면을 펼쳐보일 것이다. 모쪼록 사람이라는 벽들에 부딪혀 메아리가 있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지혜 기자〉

▽ 수종사와 5층 석탑



양평독립운동사 자료집-양평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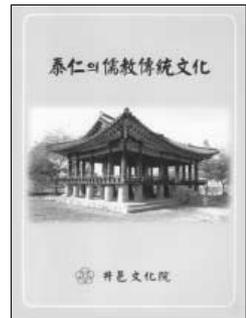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때 구한말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양평 출신 이춘영, 안승우, 김백선 의사의 최초 의병 봉기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등 이 지역 출신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과 일본법원 재판기록 등 자료를 수집해 발간했다. 이 책에는 양평 출신으로 군내외에서 전개한 의병 운동과 독립운동 행적으류 성명별로 수록하였으며 근세사 관련 자료가 되는 내용을 고종실록,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에서 발췌하여 실었다.



태인의 유교전통문화-정읍문화원

유교문화의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태인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태인의 유교전통문화'를 발간했다. 유교의 주요 이론 정리와 어원 풀이, 그리고 전래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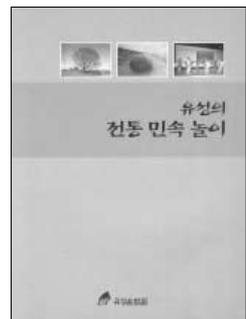
또 신라말 태산군수를 지낸 고운(孤雲)·최치원(崔致遠)에 얽힌 일화와 관련 유적을 소개하고, 태인지역의 각종 향약을 수록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인지역의 각종 전통유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유성의 전통 민속놀이-유성문화원

이미 발굴, 소개된 민속놀이 '바구니 뽕싸움놀이' '산소골 상여놀이' 외 추가로 연구학자들을 통해 원신흥동에서 내려오던 '줄다리기'와 지족동·반석동 등지에서 전해오던 '들돌', 그리고 추목동에서 전해오던 '수운교 바라춤' 등을 새로 발굴, 소개하는 '유성의 전통 민속놀이'를 발간했다.

여기에 소개된 '들돌'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서민들의 성년례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사회의 모습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고, '바라춤'은 동학란 때 목숨을 잃은 농민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진혼의식으로, 옛날의 종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단종연구논총-영월문화원

매년 단종학술심포지엄을 개최, 단종과 관련된 정사나 야사 혹은 구전되어 온 야화,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이론체계 확립을 위해 보내온 원고를 모아 단종연구논총을 발간했다.

이 논문집은 크게 역사 속의 단종과 민속속의 단종으로 나누어 단종과 관련된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미처 밝혀지지 않은 자료를 통해 단종 관련 문헌과 구전자료를 비교연구한 논문들과 단종의 신격화 과정을 연구한 논문들을 모았다.





장수군의 고분문화-장수문화원

1년 동안 장수지역 관방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밝히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장수군의 산성과 봉수'를 펴낸데 이어 고분과 지표조사를 통해 새롭게 찾아낸 고분과 인근지역의 고분까지 총망라해 정리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재조명한 '장수군의 고분문화'를 발간했다.

면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많은 분묘유적을 새로 찾아냈다. 이 책에는 30개소의 지석묘와 100여 개소의 고분들, 10개소의 고총군을 수록해 문화유산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장수의 무속(巫俗)과 점복(占卜)-장수문화원

무속과 점복은 오랜 옛날부터 민간인의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신앙이다. 특히 무속은 민간신앙 중에서도 가장 확고한 신앙체계를 이루고 있다. 장수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무속과 점복에 대한 실상을 연구하기 위해 3개월간 기초자료 수집과 10개월 동안의 조사와 집필을 거쳐 이 책을 발간했다. 제 I 장에서는 민간신앙의 개념과 종류, 장수지역 무속의 성격, 법사와 보살이 된 과정 등을 실었고 II 장에서는 점복의 개념과 역사, 점복과 점복자의 종류, 입문과 수련과정, 역리점복자와 풍수점복자, 사용하는 점구의 종류와 기능, 점복의 기능 등을 수록했다. III 장에서는 20명의 보살과 2명의 법사, 역리점복자 2명과 8명의 풍수점복자들의 실상을 정리했다.



운수(雲水)의 전통과 향기-임실문화원

임실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통문화의 유물과 유적을 조사 연구 정리한 것으로 문화원에서 20여년간 수집한 모든 기록을 집대성한 성과이다.

제1장은 임실군의 지리와 역사, 2장은 선사유적·유물로 고인돌 8기와 선사유물 5곳을 소개했으며, 3장은 관방유적으로 성지 8곳, 봉수대지 3곳, 전적지 1곳, 역원지 3곳으로 구성돼 있다. 4장은 도요문화로 도요지 3곳, 분청사기요지 2곳, 백자요지 1곳, 사기 요지 1곳, 와요지 1곳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교문화와 민속, 천연기념물 등을 따로 실어 임실지역의 문화유적을 한눈에 살필 수 있게 정리했다.



국역 향토금석문화(고흥편 I)-고흥문화원

고흥군 행정구역 내에 있는 신도비(神道碑) 전부와 유허비(遺墟碑) 2곳, 정려비(旌閭碑) 2곳, 사적비(事蹟碑) 2곳을 대상으로 향토금석문화를 발간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금석문들은 문화재를 이해하고 과거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흥문화원은 이 금석문 발간을 시작으로 고흥지역의 다양한 고분자료들의 본격 연구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고장의 인물 탐구③ 철기 이범석-아우내문화원

아우내문화원에서 펴내는 ‘우리고장의 인물 탐구’ 3편인 ‘철기 이범석’이 발간되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시리즈로 올해 세 번째. 철기 이범석 장군은 민족의 설움을 통감하고 만주로 망명, 독립군 부대를 이끌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 헌신한 분이다.

해방 후에는 청년지도자로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적을 남겼고,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선현들이 남긴 빛나는 삶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거창의 바위·불교·차문화-거창문화원

거창지역의 많은 사찰유적과 토속신앙적 바위에 대한 감정과 전설, 차문화 등을 집대성한 ‘거창의 거창의 바위·불교·차문화’를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바위문화’ ‘불교문화’ ‘차문화’로 나누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위에 얽힌 민간설화와 유물·유적에 쓰여진 바위에 대한 일화, 그리고 거창지역의 불교 사찰과 유적에 대한 해설, 차문화의 유래 및 관련된 유적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민희빈 강씨-광명문화원

몇 해 전부터 지역의 인물과 역사에 대해 재조명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광명의 유일한 국가사적인 그림산 자락 영회원의 주인인 민희빈 강씨에 대한 연구자료 ‘조선왕조 500년 비운의 세자빈-민희빈 강씨’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그 동안 자료의 부족과 이른 죽음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은 민희빈에 대해 기록자료와 함께 연구성과를 모았다. 학계나 여타 연구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간행된 자료이다.



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의 하나로 발간된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에 대해 전경욱(고려대) 교수, 차부희(은율탈춤보존회) 사무국장이 집필하고 이상운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은류탈춤의 유래와 연희 배경, 은율탈춤의 각 과정별 내용, 기면 등의 소도구, 음악, 춤사위, 가면제작법, 전승 현황, 연희대본 등 은율탈춤 전반을 상세히 수록했다.





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인 '소목장'에 대해 김삼대자(홍익대 목조가구학과) 교수, 이채원(예능민속연구실) 연구원이 집필하고 서현강 사진작가의 사진을 수록했다. '소목장'에는 소목자 기능보유자 설석철과 전수교육조교인 이정곤, 김금철, 조화신 등 4인의 전통 제작도구 및 제작과정, 전승 현황 등 소목장 전반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28호 나주셋골나이-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인 '나주셋골나이'에 대해 심연옥(국민대 겸임교수, 문화재전문위원) 교수와 박원모(예능민속연구실 전문직)씨가 집필하고 사진작가 류관희씨의 사진을 수록한 이 책에는 면(綿)의 기원과 발달, 면의 특성과 재배, 면방적과 도구, 날실과 씨실 준비 공정, 무명제직과 직기, 면직물의 정련과 손질 등 셋골나이와 무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실었다.



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인 '영산쇠머리대기'에 대해 한양명(안동대) 교수, 방인아(예능민속연구실) 연구원이 집필하고 사진작가 윤병삼씨의 사진을 곁들였다.

이 책은 영산의 축제문화 속에서 쇠머리대기가 갖는 의미, 쇠머리대기의 유래, 나무소의 제작과정, 쇠머리대기의 진행 순서, 나무소의 주술종교적 의미, 쇠머리대기의 놀이문화적 위상, 전승 현황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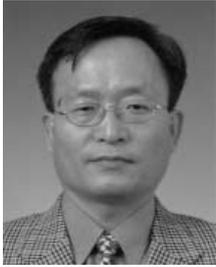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에 대해 심상현(동방대) 교수가 집필하고 불교 사진작가 석인철씨의 사진을 수록했다.

이 책에는 영산재의 기원과 의미, 영산재에 쓰이는 범패의 특징과 내용, 작법무(作法舞)의 특징과 내용, 영산재의 준비과정, 영산재의 진행과정인 시련·재대령·관육·조전점안·신중작법·괘불이운·영산작법·식당작법·중단권공·관음시식·봉송의식 등과 영산재의 전승현황, 참고문헌을 수록했다.

총회의 주요사항은 기록에 남긴다



김 점 동
회의자문 동우에스엔씨 대표

●의사록

총회나 이사회에 결과를 요약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의사록이다. 따라서 회의 내용을 완벽하게 기록한 속기록과는 다르다. 대개 의사록을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그 내용을 보아서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사록이 어떤 목적을 가진 문서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가 보더라도 대강의 경과와 의결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의결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의사록은 법원등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의의를 찾기가 힘들다.

의사록에는 모든 회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기록할 필요는 없고 회의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발언, 예컨대 제안설명, 동의, 재청, 수정동의와 이의의 제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발언, 회원이 의사록에 남겨줄 것을 요청하

고 의장이 이를 명한 발언, 반대가 있는 경우 그 내용, 표결 과정과 결과, 의결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다. 또 제안설명이 긴 내용은 간략히 기재하고 첨부문서로 1건을 만들면 사후에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래에 예시한 의사록은 총회의 진행안 작성 순서와 의사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감사보고를 앞에 둔 것은 감사의 직무가 문화원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에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까지 이르므로 총회의 벽두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보고 및 제출 서류 그리고 의안과 총회 소집과정을 감사가 조사한 바 정관에 부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이 적법·정확·타당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진술하오니 이의 진실함을 믿고 심의를 하셔도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주주총회에서는 예전에 결산안 심의에 들어가서 감사보고를 하던 관례가 없어지고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보고사항의 첫째 번 순서에 두고 있다.

●의사록 예시

□□문화원
제□회 정기총회 의사록

1. 일시 : 200□년 □월 □일 (□) 오전 □시

회의도 경쟁력이다 ④

2. 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문화원 강당

3. 출석주식수

회원총수 : 명
출석현황 : 명 (위임 명 포함)
출석률 : %

※이사회 의사록은 위임내용 삭제

정관 제조에 의거 원장 가 오전 시 정각에 의장석에 등단, 국민의례에 이어 사무국장 이 상기와 같이 출석회원수를 보고하다.

원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 말씀, 축사/격려사에 이어 총회 보고사항에 들어가다.

(※회의록 서명회원 : 원장, ·회원 선임)

○감사보고 : 감사가 제회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실시 결과 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가 적법, 정확,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진술하다.(특기사항으로 ○○) (감사보고서 별첨)

○년도 사업실적 보고 : 사무국장, 또는 원장이 년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하다.

○년도 총회 회의록 보고 : (사무국장)(또는 원장)이 년도 총회의 의사록을 발췌하여 보고한 바 회원들이 이를 접수하다.
이어서 의결사항 심의에 들어가다.

제1호의안 : 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 : 제1호의안을 상정하고 자세한 설명을 가하다.

○회원 : ... 제1호의안은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회원의 재청이 있다.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1

호의안이 원안대로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호의안 : 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 제2호의안을 상정하고 자세한 설명을 가하다.

○회원 : ... 제2호의안은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회원의 재청이 있다.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의안이 원안대로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제3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의장 : 제3호의안을 상정하고 자세한 설명을 가하다.

〈별첨 ... 정관변경(안)〉

○회원 : ...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회원의 재청이 있다.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의안이 정관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반대, 기권이 있는 경우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기권)의사를 표시한 (반대자의 성명) 등 ()명을 제외한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호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표결이 있는 경우 : 토론과정에 반대하

의사록에는 모든 회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기록할 필요는 없고 회의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발언, 예컨대 제안설명, 동의, 재청, 수정동의와 이의의 제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발언, 회원이 의사록에 남겨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명한 발언, 반대가 있는 경우 그 내용, 표결 과정과 결과, 의결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다.

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다.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친 결과 원안 통과에 찬성이 명,(%), 반대 및 기권이 명,(%)로써 제□호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4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제4-1호의안 : 원장 선출의 건

○의장 : 제4-1호의안을 상정하다.

임기만료(또는 사임) 원장을 새로 선출하고자 하며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A)동의1의 예

○□회원 : 새 원장으로 ○를 선출할 것을 동의하고 선출된 원장에게 임원 선임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임원선임에 대해 추후통지해 줄 것을 동의하다.

※많이 통용되는 방법이나 임원선출이 총회사 항임을 명시한 정관에 비추어 볼 때 편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동의2의 예

○□회원 : 새 원장으로 ○를 선출할 것을 동의하고 선출된 원장이 새 집행부를 끌고 갈 임원들을 총회에서 발표하면 이를 받아들일 것을 동의하다.

※다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한다. 이에 출석회원 전원이 박수로써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다.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호의안은 신입원장에 □(□)가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위 피선임자(들)은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고 인사말씀을 하다.

제4-2호의안 : 부원장 선출의 건

제4-3호의안 : 이사 선출의 건

○의장 : 제4-2호, 제4-3호 의안을 상정하다. 회원의 결의에 따라 부원장후보 3인과 이사 후보 □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회원 : 신입 원장이 발표한 임원후보 전원을 선출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회원 전원이 박수로써 만장일치 찬



의장의 판단이다.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 바 특정인에게 불평등의 권한을 부여하자면 전체가 합의를 거쳐 의결한 문서형식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봉(議事棒)

의사봉은 의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이다.

의사봉은 개회·폐회·산회·정회·속개 선포시, 의안의 상정·폐기·보류 선포시, 질의·토론의 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투표의 종료시, 의결 내용의 선포시 등 주요한 단락마다 타봉을 하여 회의 각 단계의 명확성을 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관례다.

또한 의장의 질서유지권 중 좌중을 정숙하게 할 목적으로 타봉하기도 하고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시키는 회원을 퇴장시키는 경우에도 의사봉을 타봉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봉이기 때문에 3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의사봉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심지어는 의사봉을 2타만 하였으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논쟁을 벌이는 일도 보게 된다. 그런데 의사봉 3타 여부는 총회 진행의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두로 선포하면 그것으로 법률적인 행위는 충족된다.

그러나 의사봉 3타를 하는 것은 의사진행의 각 단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회의체의 관습이며 이를 존중하지 않는 회의체는 없다. 우리나라는 3타를 하지만 1타 또는 2타를 하는 나라도 있다.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봉 3타를 하는 동안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소란하던 총회장이 의사봉을 타봉하는 순간 모든 것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회의체에서는 의사봉을 타봉하는 순간에 모두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가결된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특히 의결내용의 선포시 의장은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순간에 또는 다수결로 결과에 승복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의사봉을 타봉하여야 할 것이다.

마이크

총회장과 같이 다중이 모인 회의장에서는 마이크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회원들의 발언을 전 참가자들에게 명료히 전달함은 물론 속기록의 작성이나 녹취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회의의 패턴에서 마이크는 의사봉

과 함께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발언하는 회원만이 정식의 발언권자이고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회원은 회의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 심지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로 앉아서 혹은 서서 정식의 발언권을 얻은 회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방해물 하거나 야유를 하는 것은 회의 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의장은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회원은 정중하게 경고를 보내 자신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란을 야기하는 회원에게는 최악의 경우 퇴장까지도 명할 수가 있으므로 마이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의장의 질서유지권

100여년 전의 영국의회에서는 의원 상호간이나 각료들에게 비신사적인 발언을 하면 의장이 퇴장을 명했다고 한다. 이 경우 회의장 경호를 맡고 있는 경위들이 해당 의원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의원을 유명한 빅벤이 있는 종각에 감금을 하는데 그냥 감금만 당한다면 괜찮을지 몰라도 해당 의원은 지독한 고문을 받은 것과 같았다고 한다. 왜냐 하면 빅벤이 시간 마다 종소리를 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종소리를 울릴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따른 공포는 참으로 가혹했다고 한다.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

문화원 정관에는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법 제366조의 2(총회의 질서유지) 제2항은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한

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그 질서유지 대상자와 방법으로 제3항에서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경호권으로써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호권을 행하게 하고 그를 위해 경위로 하여금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파견을 요구하여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질서문란자에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또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화원 총회에서 의장 질서유지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전에 위험물질의 반입을 불허하고 총회장에서 현저하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에 대하여 발언의 금지, 정지, 발언횟수의 제한, 경고와 심한 경우는 퇴장까지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퇴장의 경우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퇴장이 총회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총회 진행을 더욱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장의 명에 따라 퇴장 당한 회원일지라도 의결권은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의결권을 위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전국문화원연합회 소개 -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그 법적 성격은 특수법인입니다.

연합회는 1962년 8월 76개 지방문화원이 모여 창립하였으나 2003년 12월 현재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220개 지방문화원이 설립 활동 중입니다.

연합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지방문화진흥법”(제12조)과 “전국문화원연합회정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고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향토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활동 지도
 - ②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 ③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④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⑤ 문화원의 관리·운영과 사업의 지도 및 조사연구
 - ⑥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사업의 지원자료 편간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 기타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 주요사업 추진개요

- 연합회기관지 발간 (1964 ~ 2004)
<우리문화>1988년 10월 월간지로 출발 ~ 2004년 2월 현재 통권 제168호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 해외문화단체와의 교류 (1964 ~ 2004)
일본공민관 시찰단 파견, 중국 조선족전통음악회 후원 및 공동개최 외 4건
- 문화원 관계자 연수교육 (1981 ~ 2004)
문화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지역문화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충전과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민속예술제 참여 (1984 ~ 2004)
연합회는 1984년 정부가 추진하는 제25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처음으로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대회 장려상 중 1편에 연합회장상을 수여해 오고있으며, 2004년 현재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986 ~ 2004)
1986년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아내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향토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정보·전산화 사업 (1997 ~ 2004)
연합회의 정보화사업은 1997년 4월 문화관광부의 사이버문화관사업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한국의 향토문화와 관련된 종합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활문화운동 전개 (1983 ~ 2004)
연합회는 1983년도부터 전국의 지방문화원과 더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향토문화자원의 조사·정리·발간 (1999 ~ 2004)
연합회는 1999년도부터 향토문화자원의 조사·정리·발간사업을 추진 ‘한국의 문화자원’ 정리발간,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전6권 1집 발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주관 (2002 ~ 2004)
문화관광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향토문화역사 복원 및 보존으로 실질적인 문화자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지원주체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